

해운대구 생활지표 50



Contents

I . 인구와 거버넌스	03p	
II . 주거와 일·생활	15p	
III . 교육과 문화·여가	27p	
IV . 가족과 교통·안전	39p	
V . 건강과 환경	5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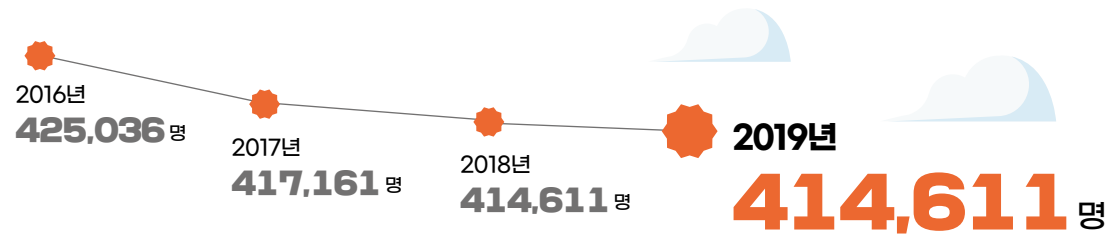
I

인구와 거버넌스

-
1. 인구 규모
 2. 출산율
 3.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4. 인구 이동
 5. 장애인 등록 현황
 6.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정체성
 7.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8. 재정 운영
 9. 법률홈닥터 운영 실적
 10. 청렴도 측정 결과
-



1. 인구 규모



2019년 해운대구 인구는 40만 6천명으로 부산시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제일 높은 인구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오늘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OK! 공감구청장실

구청의 문턱을 낮춰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점을 찾는 'OK! 공감구청장실'이 2018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민은 누구나 공감구청장실 문을 두드려 주세요.

매주 금요일, 주민 여러분과의 가슴 설레는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영 개요 : 1~4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4시, 해운대구청 1층 민원실 내 홍보관 | T. 051-749-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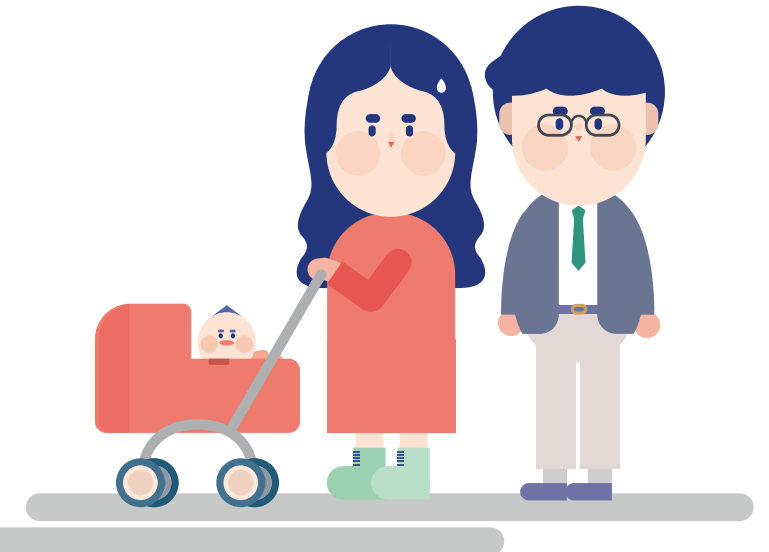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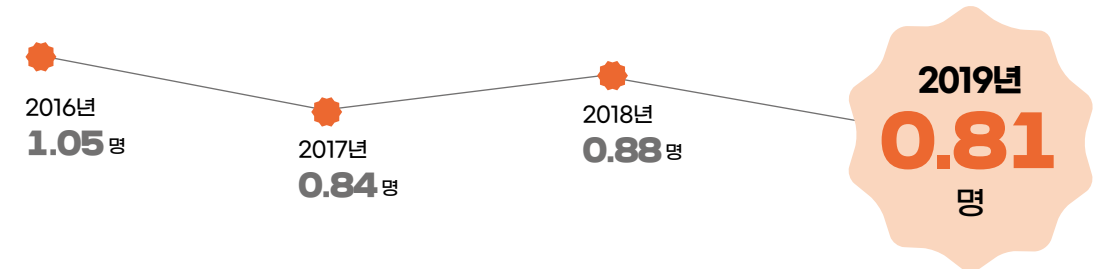
온라인 소통방 '다모이소'

'다모이소'는 해운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운대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공감을 얻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소통플랫폼입니다. '나'와 '너'의 생각이 모이면 '해운대'의 정책이 된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모이소'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온라인소통방 다모이소 | www.haeundae.go.kr/talk

2. 출산율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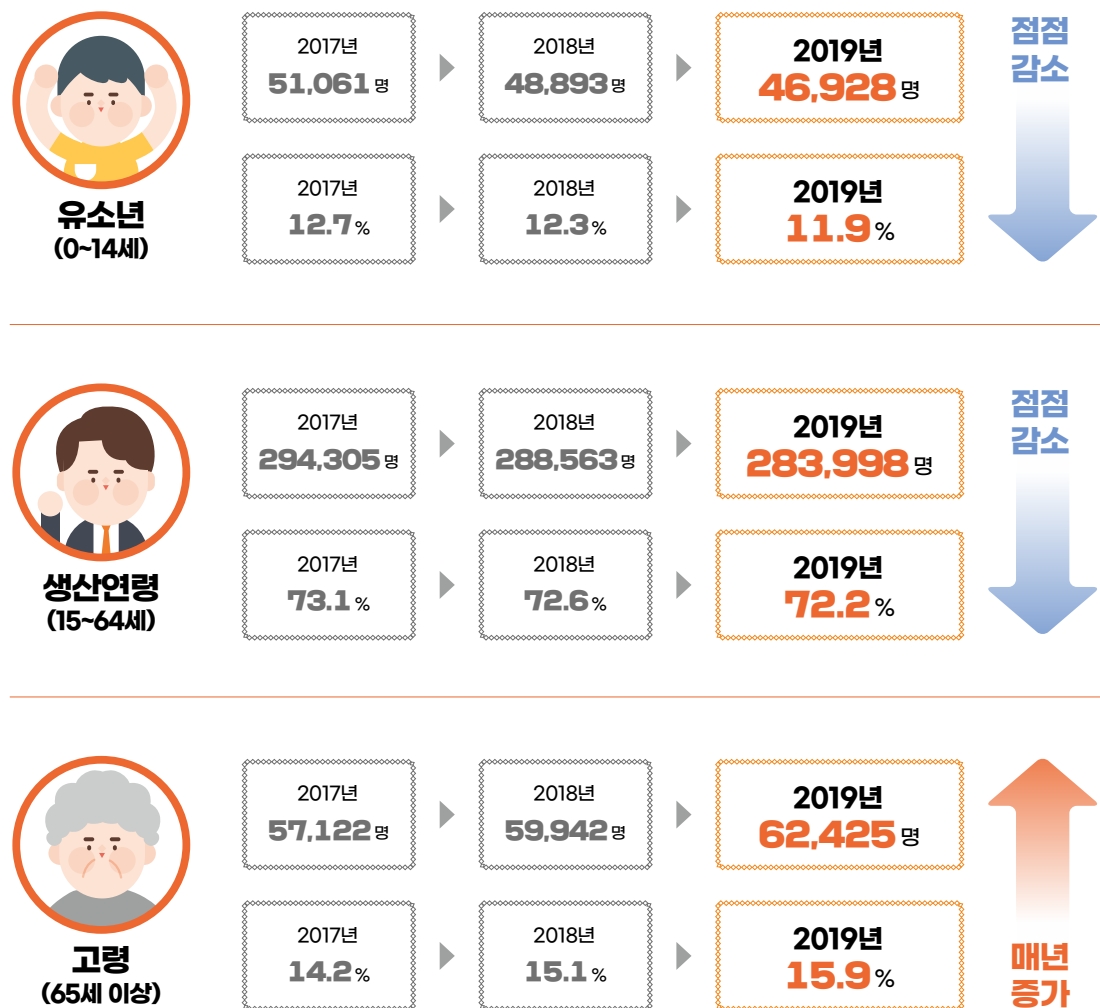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운대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출산과 보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가맘센터

2019년 5월 해운대보건소 내 개소한 아가맘센터에서는 예비맘 · 임신부 통합건강관리 지원, 신생아 ·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및 예방접종, 아가 · 맘 카페 운영, 오감발달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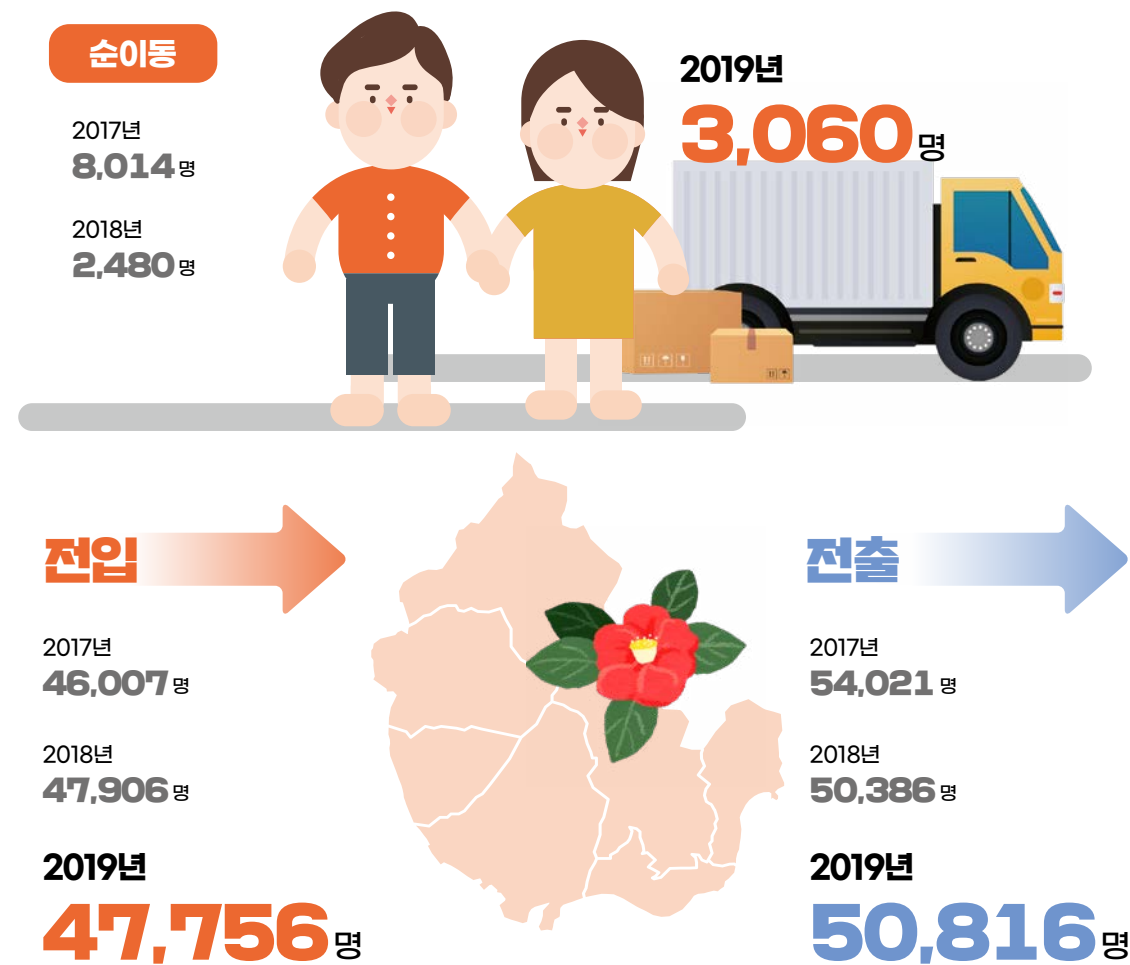
해운대구보건소 | T. 051-749-7525~7526,7528 | <http://www.haeundae.go.kr/health/index.do>

3.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2019년 유소년 인구는 46,928명(11.9%), 생산연령인구는 283,998(72.2%)으로 점점 감소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2,425(15.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막기보다 그 흐름이 주민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 올지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운대구의 역할일 것입니다.

4.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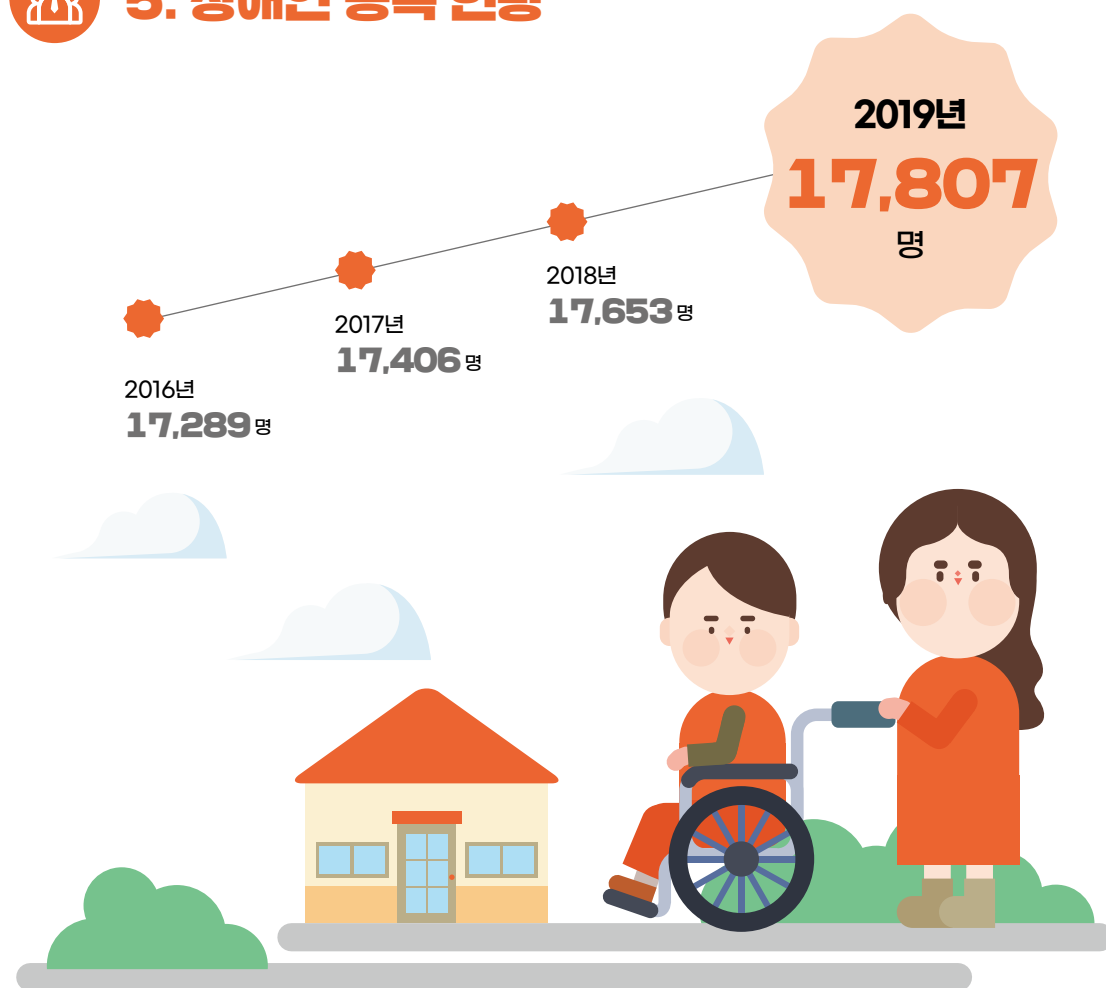


2019년 해운대구 총 전입자 수는 4만 7,756명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고, 전출자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50,816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정부24 (www.gov.kr)]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후 해야 할 일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할일

해운대구청 : www.haeundae.go.kr → 행정 → 민원 → 전입 후 할일

5. 장애인 등록 현황



2019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406,102명) 대비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17,807명) 비율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인등록 시, 다양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각종 상담과 교육, 자립지원,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속도'보다는 '함께' 발맞추는, 희망찬 미래도시를 꿈꿉니다.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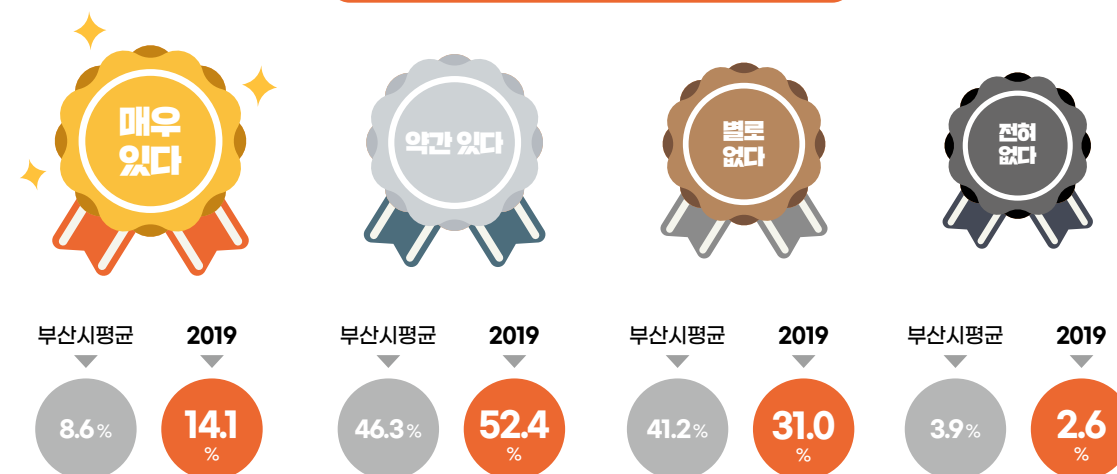
해운대구 선수촌로207번길 81(반여동) | T. 051-521-5200 | <http://togetherhaeundae.or.kr>

6.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정체성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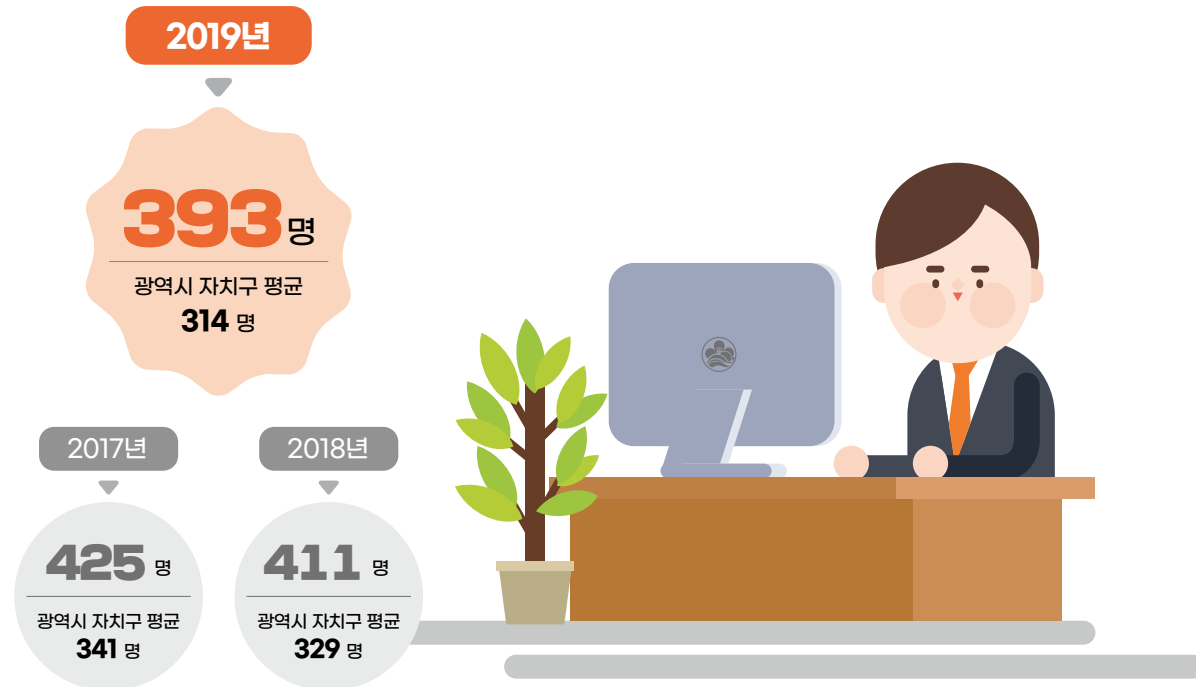


지역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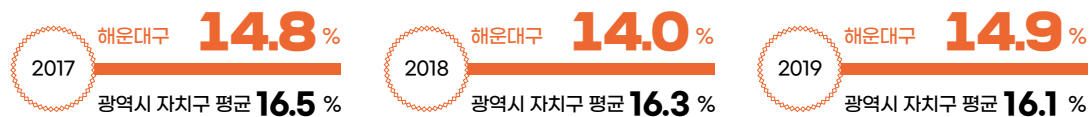


해운대구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48.2%로 부산시 평균 38.8%를 웃돌며 높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구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수 이상(66.5%)의 해운대 구민은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제일 높은 지역정체성을 기록했습니다.

7.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건전하고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을 포함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조직운영 5대 지표를 ‘내고장알리미(Laiis)’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비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1인당 주민수가 다른구에 비해 많은 편이긴 하나 점점 줄어왔습니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행정의 질을 가능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행정 내외 여건 변화와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 재정 운영



해운대구의 2019년도 살림규모는 7천 624억원으로 전년대비 1,2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천 527억원)보다 297억원이 많고, 이전재원은 83억원이 많았습니다. 2018년 말 기준 해운대구의 채무는 없고, 공유재산은 1조 3천 871억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4천 485억원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해운대구의 재정은 세입여건이 우수하고, 채무액이 없어 채무관리에 따른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아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해운대구의 살림살이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재정 알아보기

해운대구청 : www.haeundae.go.kr → 공개 → 예산 → 재정공시

9. 법률홈닥터 운영 실적



2018년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소송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면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법률홈닥터실로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1층 | T. 051-749-5689

10.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 발표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 실시 등 공직 내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 2019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감찰, 민원부조리신고

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T. 051-749-4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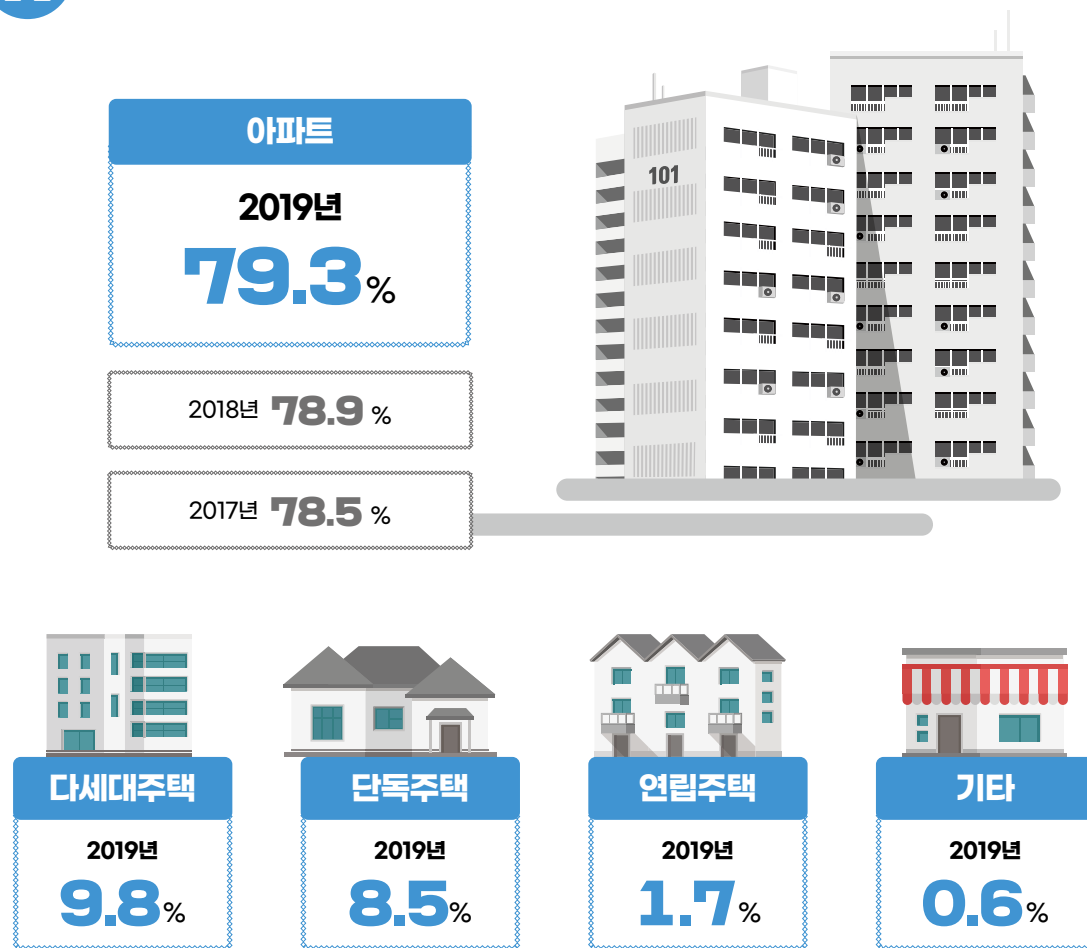
II

주거와 일·생활

-
- 11. 주거 형태
 - 12. 주거환경 만족도
 - 13. 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 14. 일자리 창출 수
 - 15. 월평균 가구 소득, 지출 항목
 - 16. 가구 부채
 - 17. 주로 이용하는 시장
 - 18.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 19. 통근·통학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 20. 반려동물 현황
-



11. 주거 형태



해운대구 주민들은 어떤 종류의 주거공간에 살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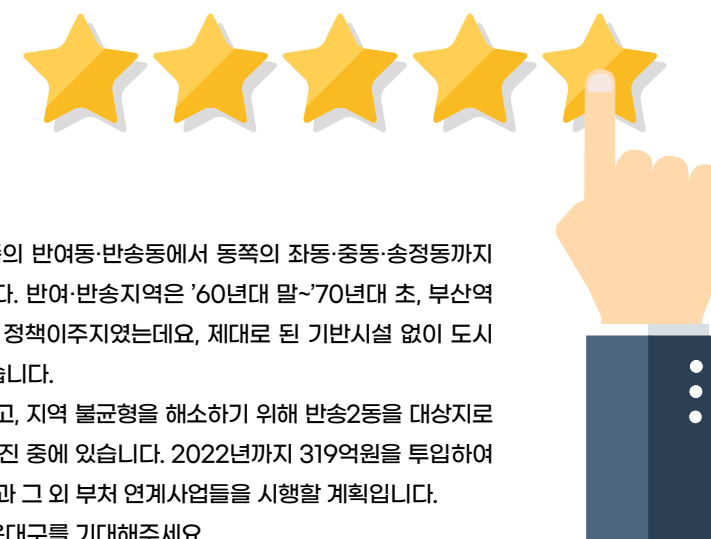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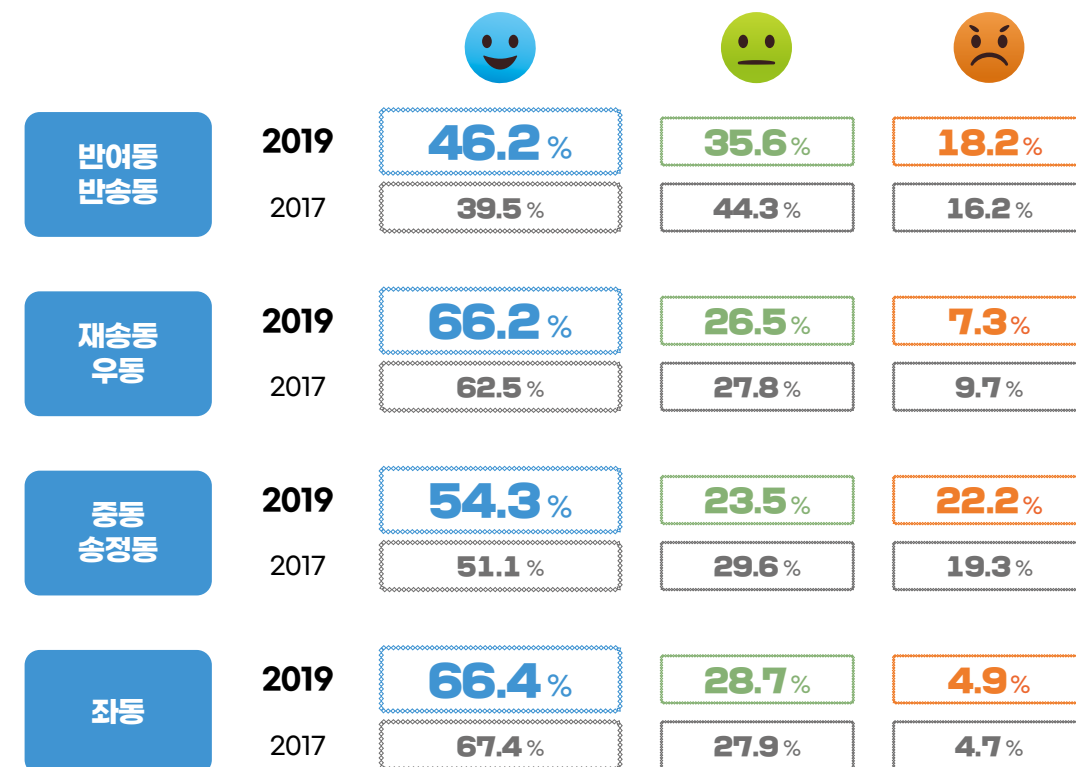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7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련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2018년 부산 최초로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부터 주민 갈등·분쟁 해소 지원까지 더불어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

공동주택관리팀은 팀장 1명과 팀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련 민원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신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관리실태 지도, 공동주택 특별감사 및 분쟁조정, 공동주택 관련 지원 사업,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팀 | T. 051-749-4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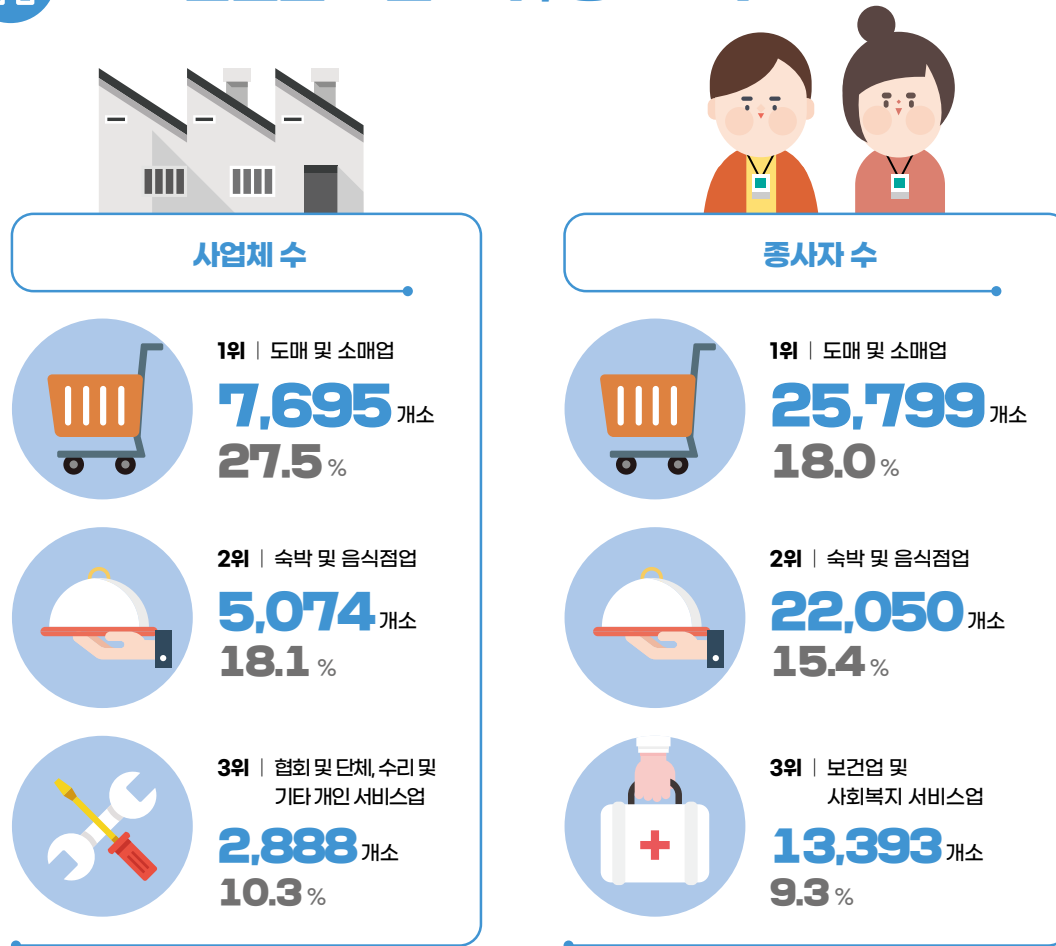
12. 주거환경 만족도



해운대구는 재송동·우동을 중심으로 서쪽의 반여동·반송동에서 동쪽의 좌동·중동·송정동까지 왼쪽이 둥근 그림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여·반송지역은 '60년대 말~'70년대 초, 부산역 일원의 철거민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정책이주지였는데, 제대로 된 기반시설 없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송2동을 대상지로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319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재생', '주거재생', '근린경제재생'사업과 그 외 부처 연계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색깔로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 해운대구를 기대해주세요.

13. 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해운대구에는 어떤 종류의 사업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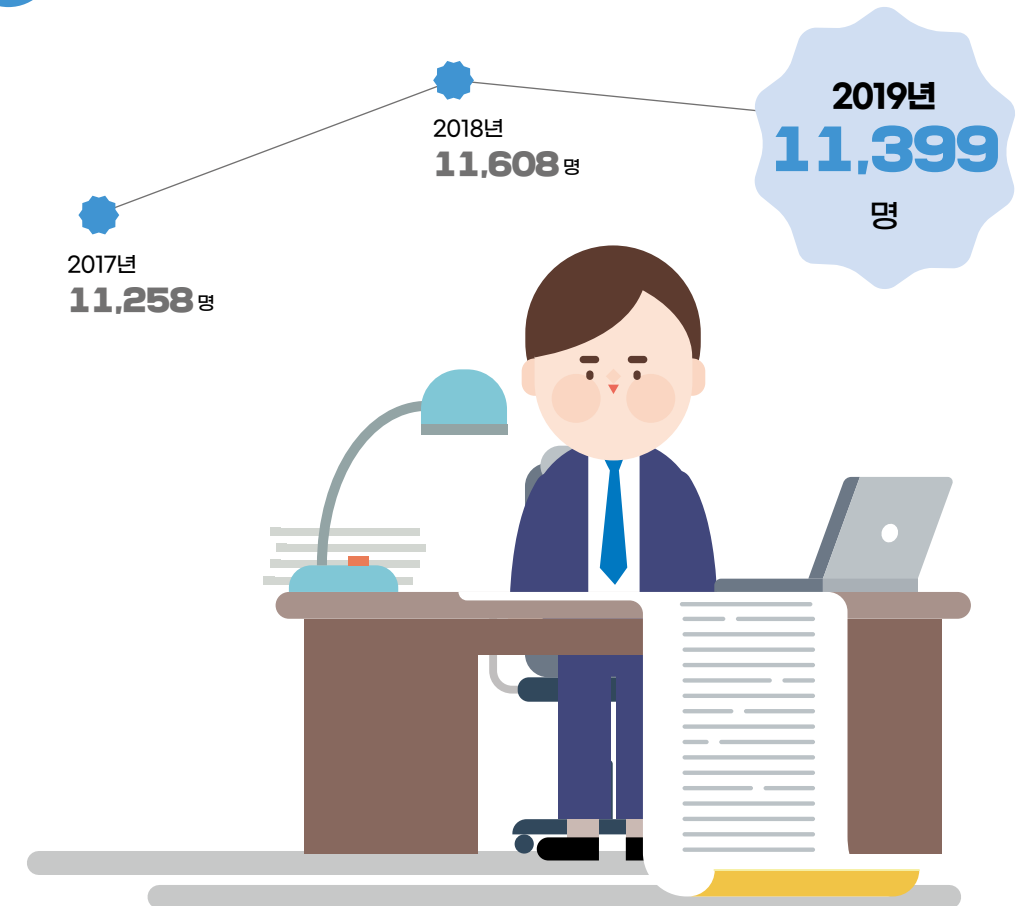
2018년 기준 18가지의 산업에 2만 8천개의 사업체, 총 14만 3천 5백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사업체 중 27.5%를 차지하며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18.0%), 숙박 및 음식점업(1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3%) 순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업체 관련 통계자료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상담

해운대구청 : www.haeundae.go.kr → 공개 → 통계 → 통계정보

14. 일자리 창출 수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일자리와 실업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18년에는 7년 연속 일자리 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단순노동 중심의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해운대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함께 일할 직원이 필요하시다면 해운대구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를 찾아주세요. 구인·구직 등 일자리 관련 상담을 위해 총 **9개소의 일자리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상담

해운대구청 1층 일자리상담실 | T. 051-749-4345, 4927

15. 월평균 가구 소득, 지출 항목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018년 15.8%

2019년 18.5%

100~200만원 미만

2018년 16.0%

2019년 19.0%

700만원 이상

2018년 6.7%

2019년 9.5%



가구 지출 항목별 구성비



식료품

43.7%



보건의료

18.2%



교육

15.9%

지난 1년간 해운대구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월평균 3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소득의 가구비율은 증가하였고, 나머지 소득별 가구비율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였네요. 가구 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43.7%), 보건의료(18.2%), 교육(15.9%) 순이었습니다.

16. 가구 부채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



2017년

47%

2019년

41.3%

부채의 주된 이유



주택임차 및 구입

75.7%



교육비

3.7%

해운대구 가구 중 부채가 있다 41.3%, 없다 58.7%로 나타나, 2017년 대비 부채 가구 비율이 5.7%p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주택임차 및 구입'이 75.7%로 가장 높은 부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해운대구형 행복주택

해운대구는 부채의 주된 이유가 주택임차 혹은 구입임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청년들의 도시유입을 통한 활기조성을 위해 청년사회주택 310세대 공급을 준비중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주택도 부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사무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업지원 시설과 주거시설을 결합한 형태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일자리창업과 | T. 051-888-4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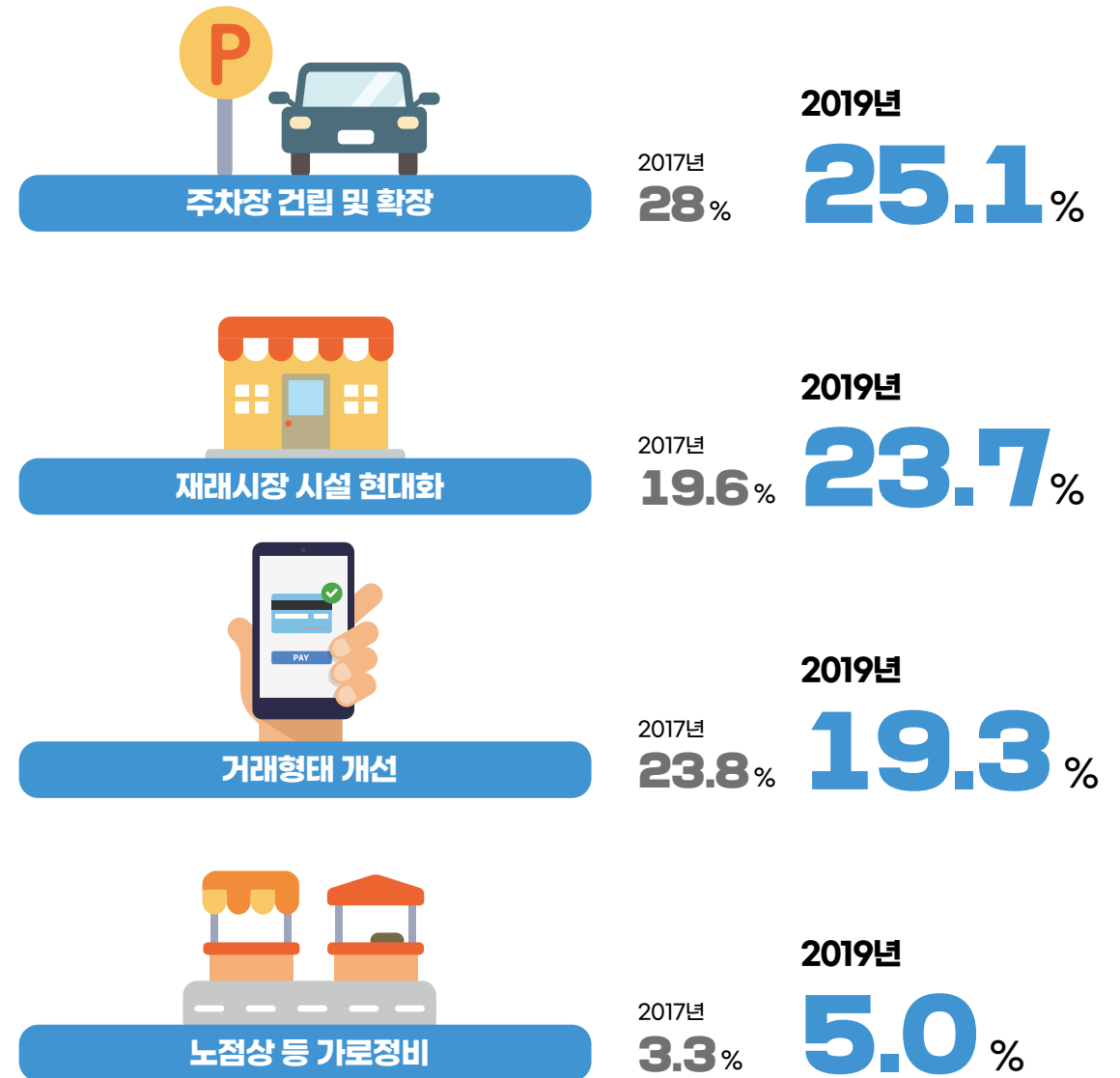
17. 주로 이용하는 시장



	전통(재래) 시장	대형마트 (3,000㎡ 이상)	슈퍼마켓 (165㎡~3,000㎡)	동네슈퍼 (165㎡ 미만)	백화점내 식품코너	인터넷 쇼핑몰
2017	19.4%	46.5%	13.8%	12.8%	1.6%	5.8%
2019	20.6%	40%	15.4%	15.1%	1.1%	7.7%

해운대구 주민들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전통 시장 이용률을 높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8.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건립 및 확장'이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시설현대화'와 '거래형태 개선'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한 전통시장 인프라구축을 위해 해운대구는 꾸준히 노력 중인데요. 좌동재래시장, 해운대시장, 반송골목시장, 우동종합상가시장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천장(아케이드) 설치 및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다가갈 해운대구 전통시장, 많이 방문해 주세요.

19. 통근·통학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통근·통학 교통수단

승용차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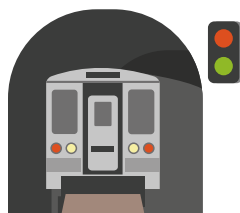
버스

19.6%



도보

18.4%



도시철도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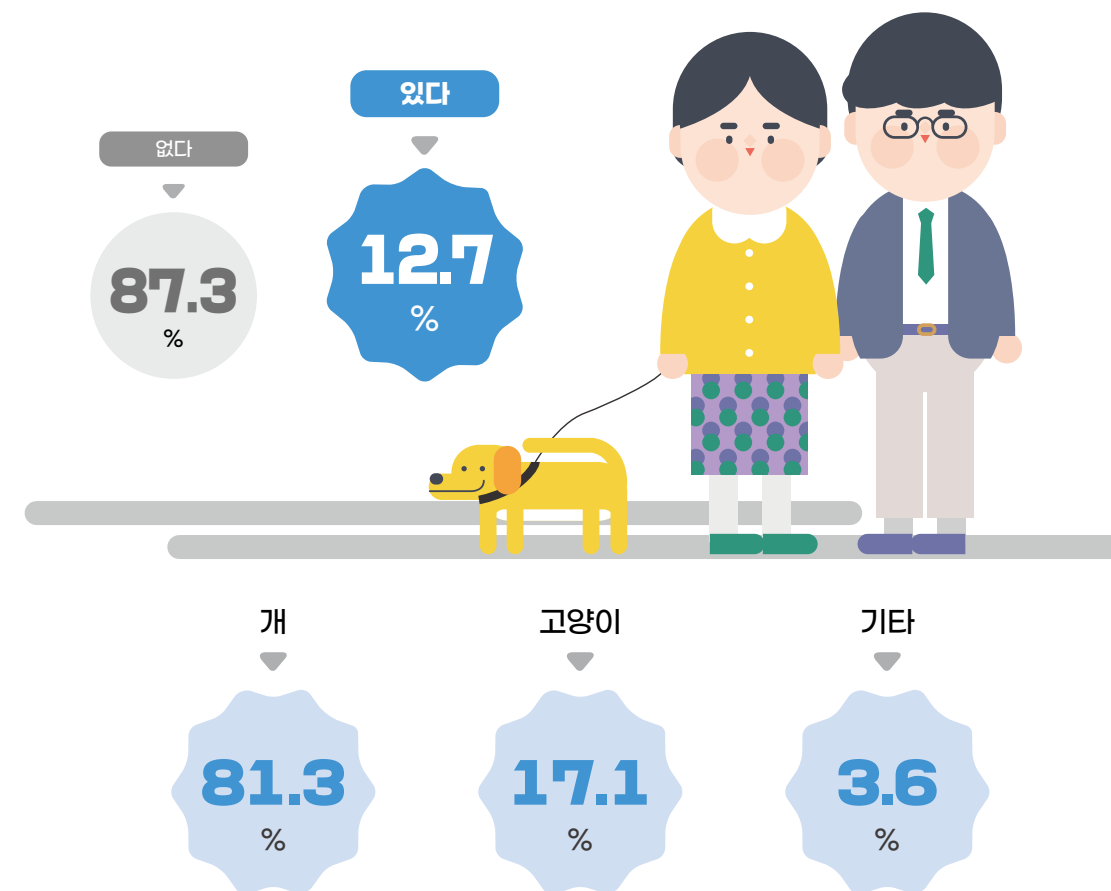
통근·통학 소요 시간



32.5분

해운대 구민의 하루 일과 중, 통근·통학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5세 이상 해운대 구민들의 평균 통근·통학 시간은 32.5분으로 하루 한시간이 넘는 시간이 길 위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40.8%)입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상습정체구역,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 어귀 삼거리·양운고교 교차로, 선수촌교차로, 석대체육공원(세양물류CY 앞)교차로는 정비를 마쳤고, 요트경기장 진·출입 체계도 변경했으며, 송정1호교 좌회전 포켓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20. 반려동물 현황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을 넘어 선 지금, 해운대구에는 10가구 중 1가구가 1마리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동물복지가 곧 주민을 위한 복지라는 생각으로 2016년 기초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호팀(이후 동물정책팀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여, 펫티켓 문화 확산 및 유기견, 길고양이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부산 최초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건립하여, 동물복지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되며, 해운대 구민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의 소요기간은 1달 반 정도이며 입양 전 3회 이상의 상담을 하여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580-1 | T. 051-749-5680 / [Instagram] @haeundaegu_anim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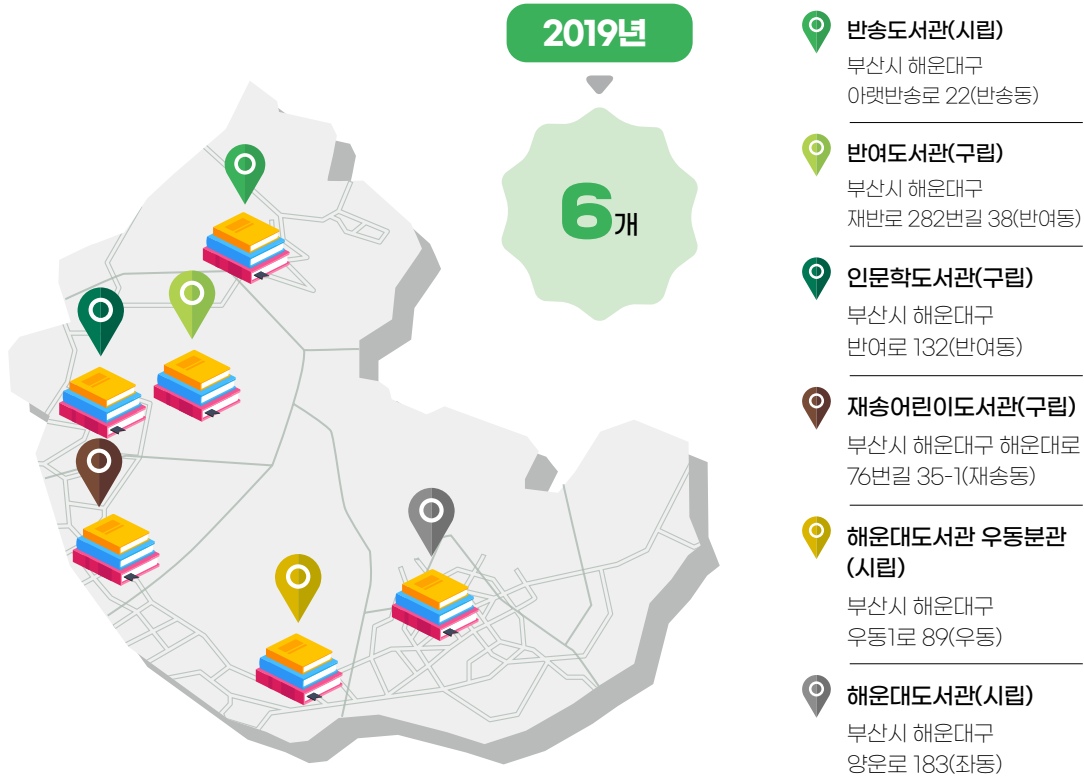
III

교육과 문화, 여가

-
- 21. 공공도서관 수
 - 22. 국공립 어린이집 수
 - 23.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24. 상담시설이용 청소년 수
 - 25. 평생교육 희망내용
 - 26. 여가 활용
 - 27.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28. 문화시설 수에 대한 견해
 - 29. 스포츠활동 참여율
 - 30. 도시공원 현황
-



21. 공공도서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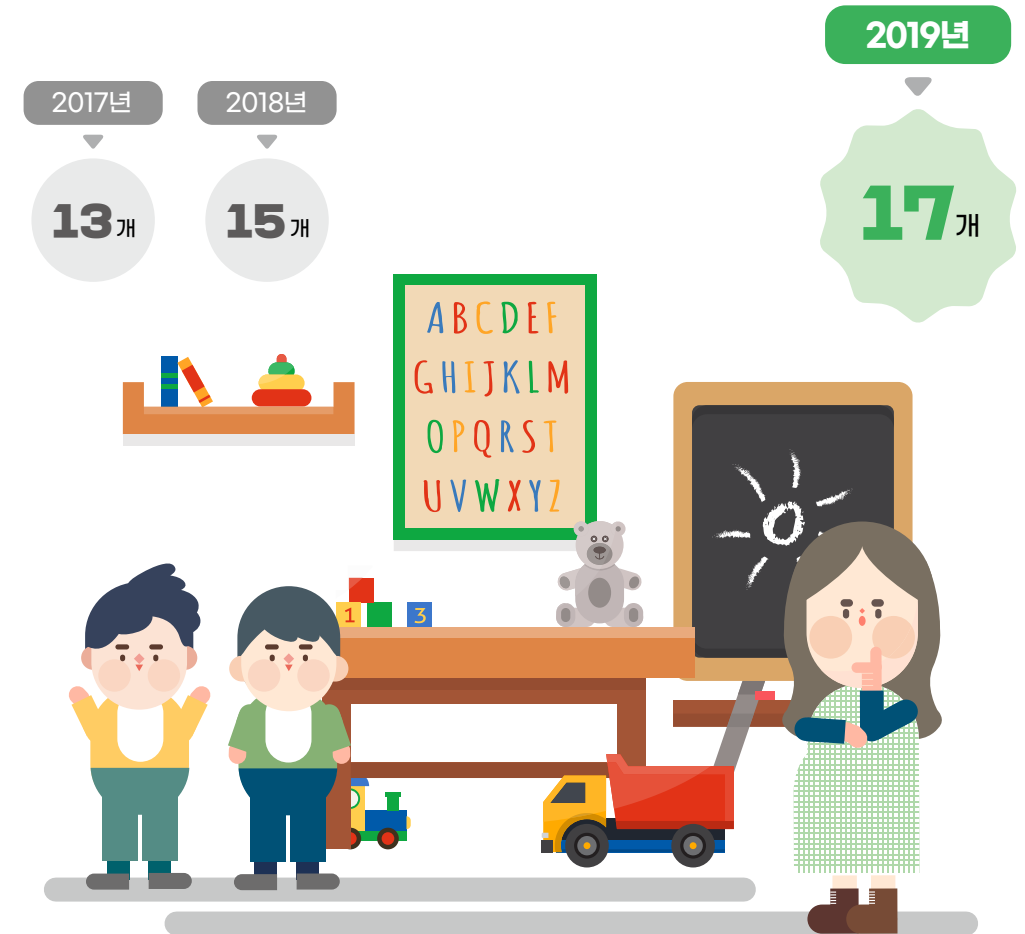


바야흐로 다양한 기술과 분야가 한데 모여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유연성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독서라고 하는데, 독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진리와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요. 이번 주말은 가까운 도서관으로의 산책, 어떠신가요?

해운대구 도서관

- 해운대도서관 : www.haeundaelib.or.kr | T. 051-709-0900
- 반송도서관 : www.bansonglib.or.kr | T. 051-545-0102
- 인문학도서관 : www.haeundae.go.kr/library | T. 051-749-6580
- 반여도서관 : www.haeundae.go.kr/library | T. 051-783-4010
- 재송어린이도서관 : www.haeundae.go.kr/library | T. 051-749-763
- 작은도서관 : www.smalllibrary.org

22. 국공립 어린이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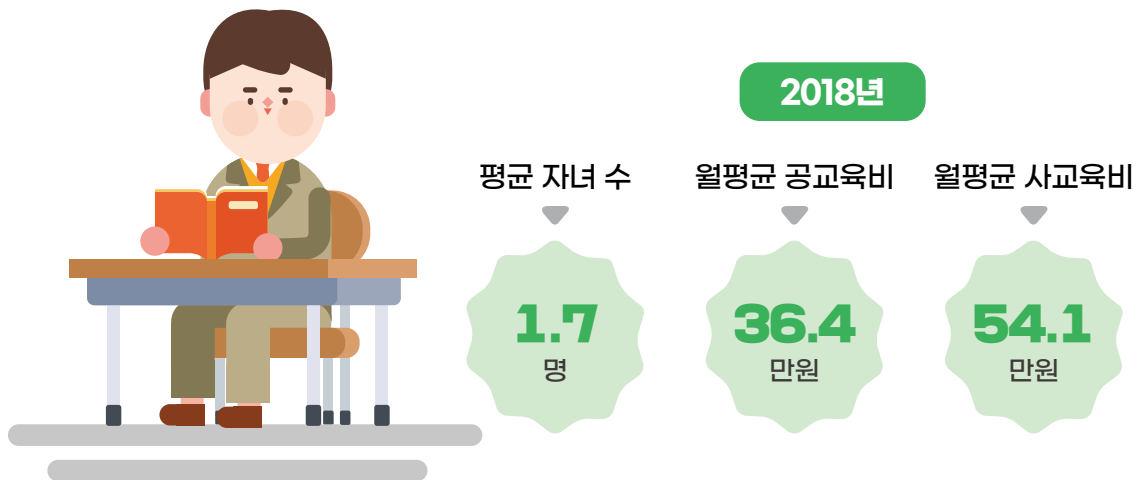


점점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의 수와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을 찾는 부모의 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일까요? 부모들은 믿고 맡길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산시의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공동주택 및 민간(자가)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육 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국공립어린이집 찾기

<http://www.childcare.go.kr>

23.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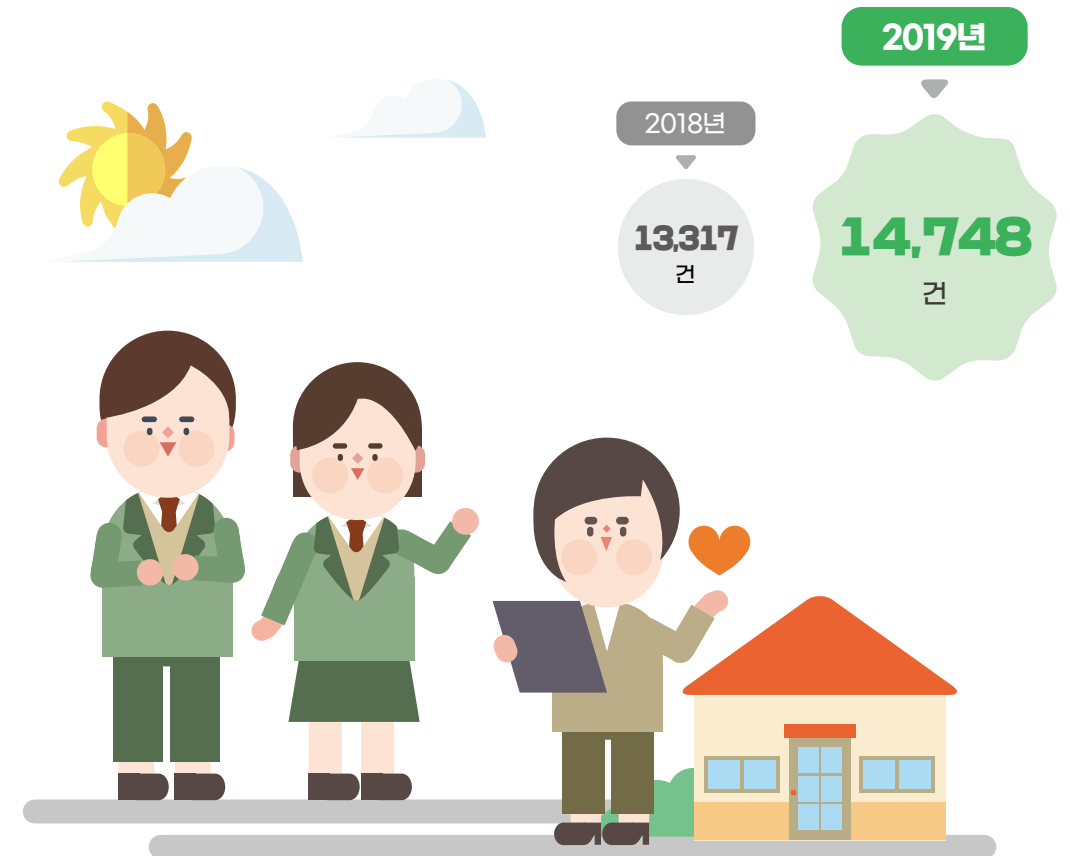
	평균 자녀 수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미취학 자녀	1.4 명	5 만원	28 만원
초등학생	1.2 명	7 만원	51.8 만원
중학생	1 명	11 만원	54 만원
고등학생	1.1 명	31.9 만원	60.7 만원
대학생, 대학원생	1.1 명	63.9 만원	7.9 만원

해운대구의 가구당 미취학자녀 및 학생수는 평균 1.7명이며, 월평균 36.4만원의 공교육비를, 54.1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만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소리를 새겨들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해운대구의 역할이지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고루 제공하고자 '해운대구 실시간 교육포털 학습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실시간 교육방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해운대구 실시간 교육포털 학습사이트

<http://www.hudedu.com>

24. 상담시설이용 청소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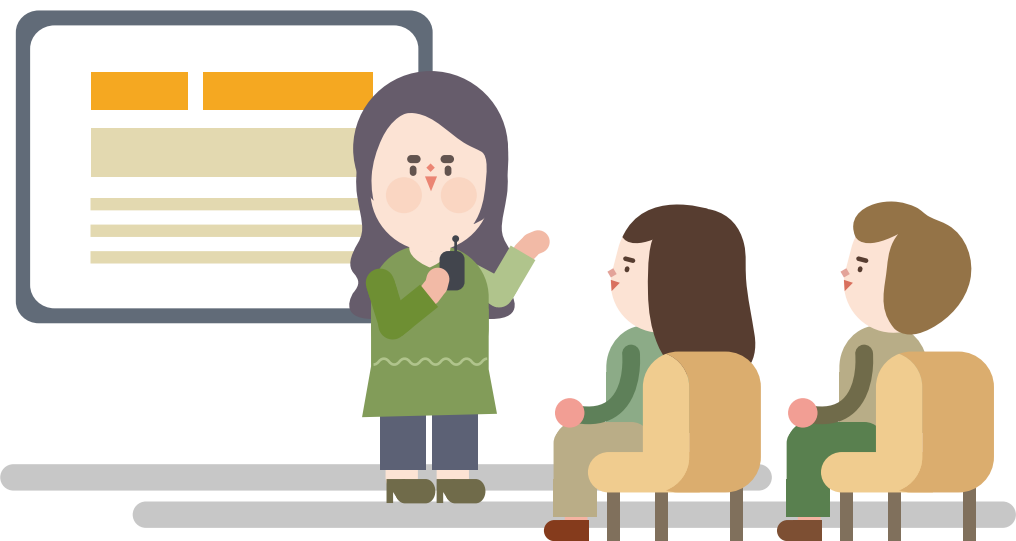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해야함과 동시에 신체적·심리적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 어찌보면 성인보다 더욱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운대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심리검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청소년의 심리를 파악한 후 상담, 각종 집단프로그램, 지역사회통합지원 체계(CYS-net),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로 575, 11층(국제빌딩, 우1동) | T. 051-715-1388

25. 평생교육 희망내용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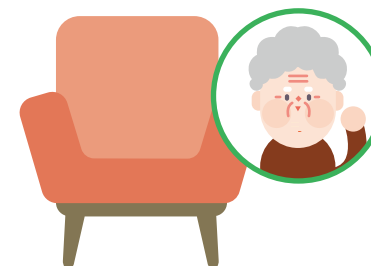
문화·예술	레저·생활스포츠	건강	인문·교양	직업 및 업무
27.4 %	26.9 %	13.2 %	12.4 %	14.3 %

인간의 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가정·학교·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자유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끊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관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은퇴(예정)자의 후반기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인 '해운대 원더풀 미래대학'을, 야간 평생학습 강좌인 '해운대 별밤학교'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풍요로운 100세 시대 인생을 위해 해운대 평생학습관 늘배움터에는 다양한 강좌 및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평생학습관 늘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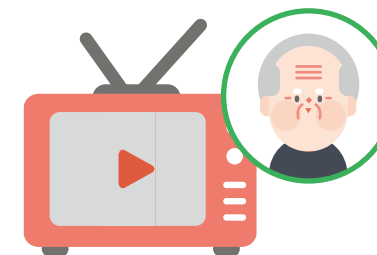
<http://www.haeundae.go.kr/edu>

26. 여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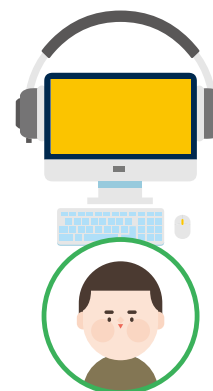
휴식 활동

60.9 %



TV시청

60.5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21.1 %



문화예술 관람

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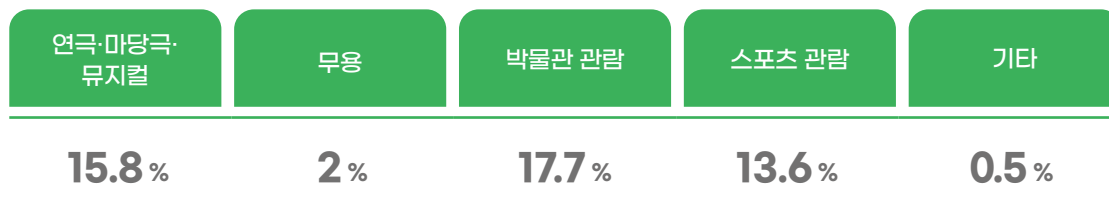
취미 및 자기계발 활동

16.8 %

주말이나 휴일에 해운대 주민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휴식활동 60.9%, TV시청 60.5%,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21.1%, 문화예술 관람 20%, 취미 및 자기계발 활동 16.8%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TV시청과 휴식활동으로 여가를 활용하였고,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은 10~20대, 문화예술 관람은 30~40대, 사회 및 기타 활동은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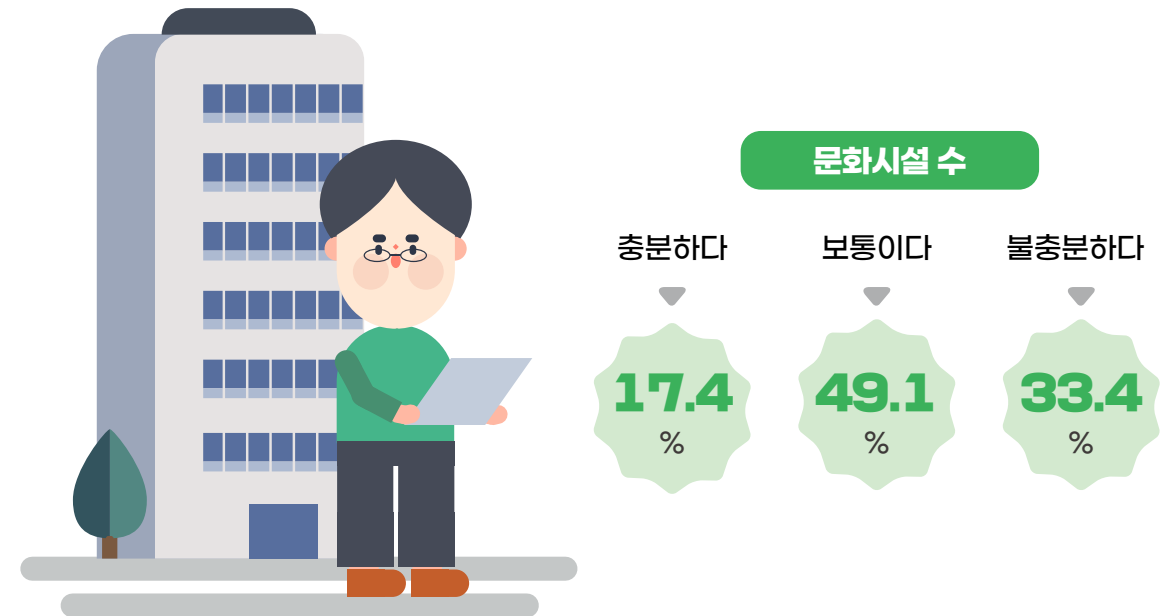


15세 이상 해운대 구민은 문화예술행사 중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연주회 20.8%, 미술관 관람 19%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기회, 멀리 있지 않아요. 해운대문화회관에서는 연중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개최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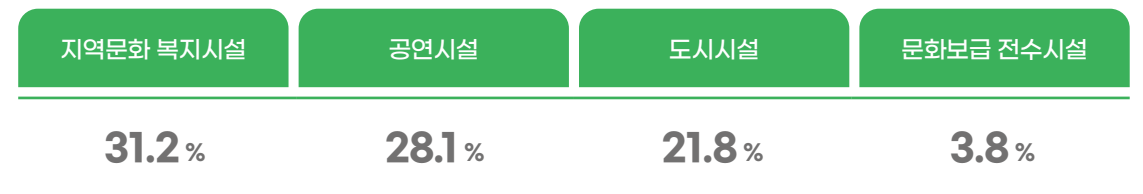
해운대문화회관

해운대구 양운로 97 | www.haeundae.go.kr/culture

28. 문화시설 수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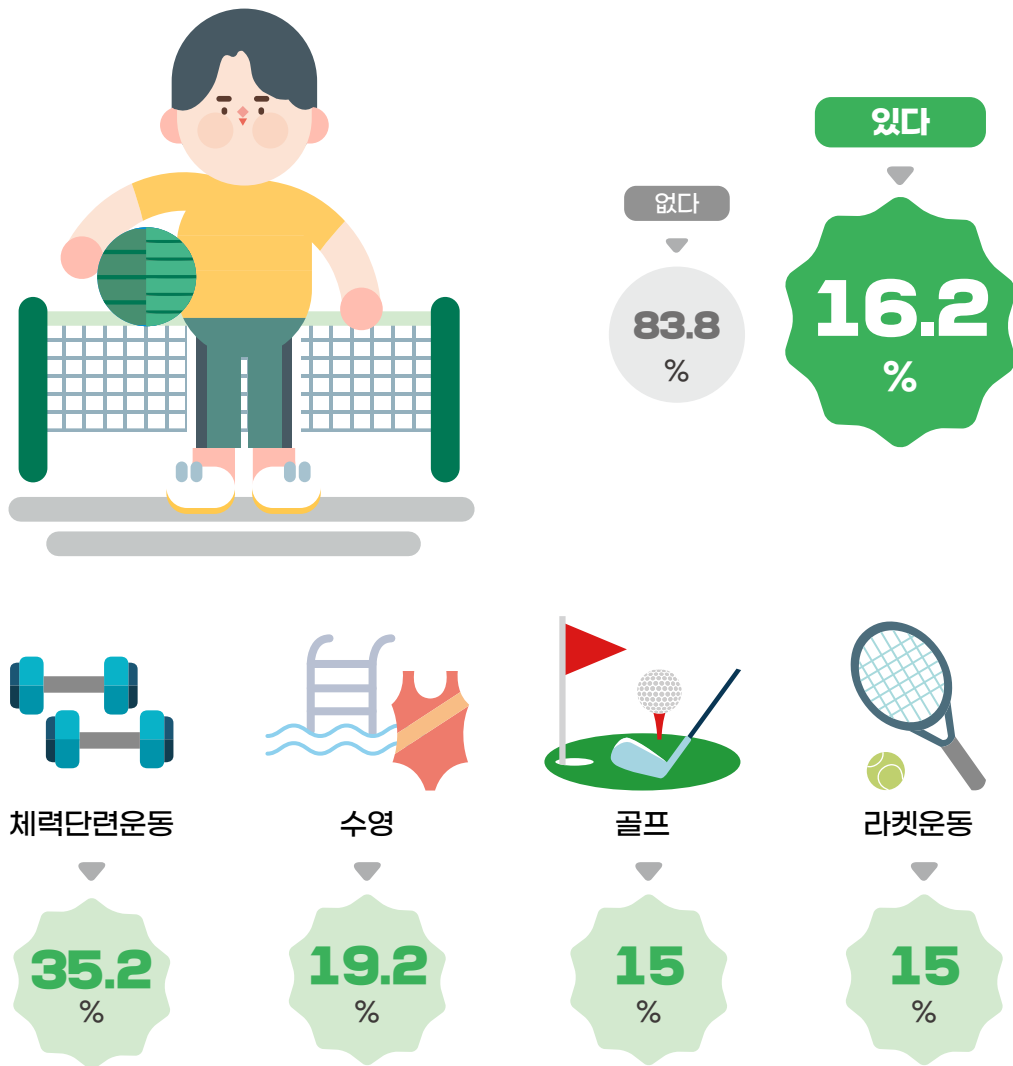


우선 확충되어야 할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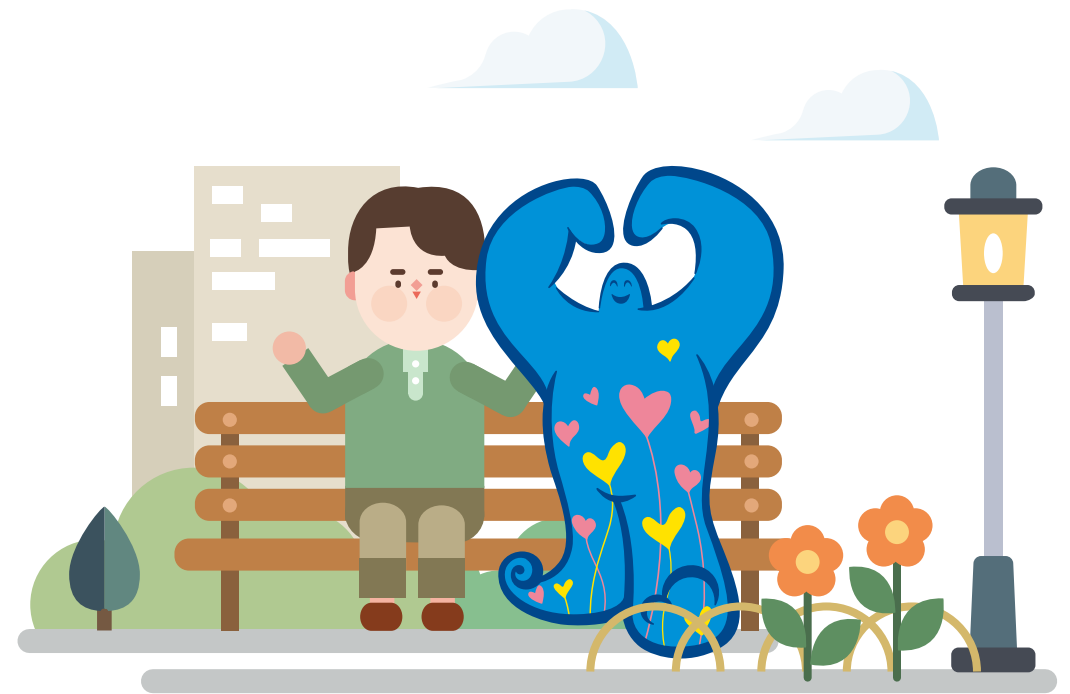
해운대구의 문화시설 수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충분 17.4%, 보통 49.1%, 부족 33.4%로 나타나 충분하다는 견해 보다 부족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선택한 우선 확충 문화시설은 지역문화복지시설 (복지회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운대구는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건의에 따라 35억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의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세탁방, 프로그램실, 마을건강센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9. 스포츠활동 참여율



2019년 해운대구에서 클럽이나 동호회, 강습 등을 통해 스포츠 또는 해양레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주민은 16.2%로 낮은편입니다. 스포츠활동 참여자들은 체력단련운동(35.2%), 수영(19.2%), 골프(15%), 라켓운동(15%), 구기운동(14.3%)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네요. 해운대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지역 스포츠 클럽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7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부산 최초로 **동체육회를 창립**하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클럽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30. 도시공원 현황



	1인당 면적	총면적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2017	5.1㎡	2,143,500㎡	125,800㎡	1,663,700㎡
2018	6.4㎡	2,635,300㎡	126,000㎡	2,155,300㎡

도시공원이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원·녹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대구의 도시공원은 얼마나 조성, 관리되고 있을까요? 2019년 해운대구 도시공원 면적은 총2,635,300㎡로 전년대비 4,918㎡ 증가하였고, 해운대 구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4㎡로 나타났습니다.

IV

가족과 교통·안전

-
- 3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32. 범죄 발생 건수
 - 33.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 34. 안전벨트 착용률
 - 35. 최우선 시행 안전사업
 - 36.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 37. 나홀로 가구 현황
 - 38.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 39. 선호하는 가족 형태
 - 40. 선호하는 노후생활 형태
-



3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18년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1.6% 16.6% 52.2% 24.4% 5.3%

2016년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안전감은 9.1% 증가하고, 불안감은 20.4% 감소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해운대구는 2019년 5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부산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만 해운대구에 두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 구민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외국인을 포함하한 모든 구민에게 적용되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면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총 12종의 재난, 사고 피해 구민에게 최고 1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해운대구청 : www.haeundae.go.kr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안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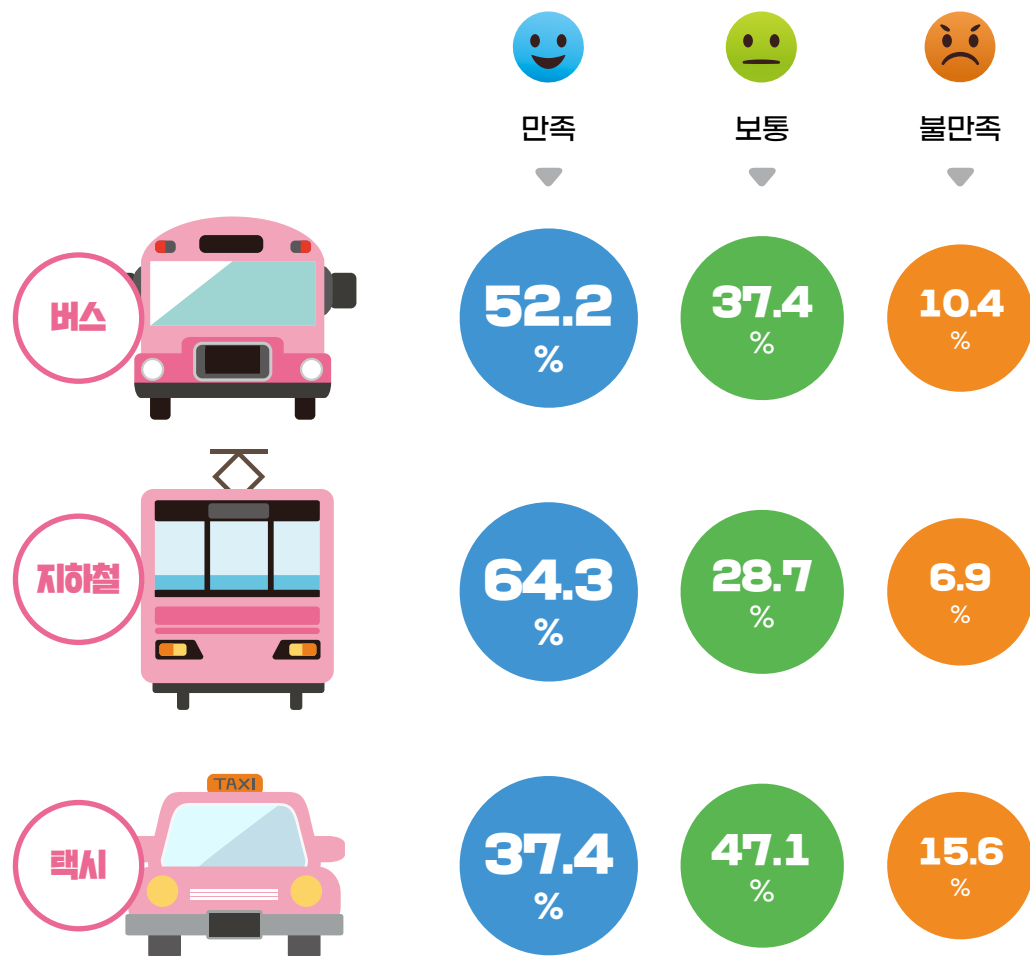
32. 범죄 발생 건수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2017	202 건	1,547 건	2,240 건	2,445 건	72 건
2018	192 건	1,348 건	2,006 건	3,006 건	48 건

해운대구는 각종 범죄, 사건·사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해운대구청 1층에 마련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1천2백여 대의 CCTV카메라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집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오늘도 눈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는 중입니다.

33.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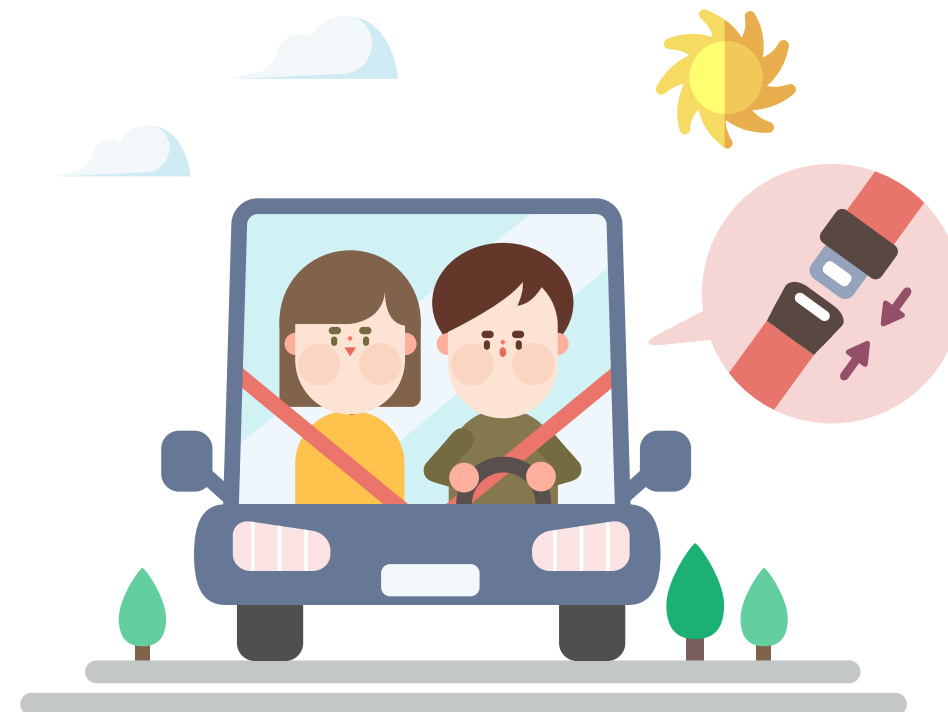


시내버스 이용자의 52.2%, 지하철 이용자의 64.3%, 택시 이용자의 37.4%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택시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고, 뒤이어 전 시내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지요. 구민의 발이 되어 해운대 전역을 누비는 마을버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8개 노선 21대 마을버스에도 부산시 최초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해운대구의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운대교통 정보 웹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 중인데요, 언제든 편리한 교통정보를 PC나 모바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교통정보 웹사이트

<http://www.haeundae.go.kr/h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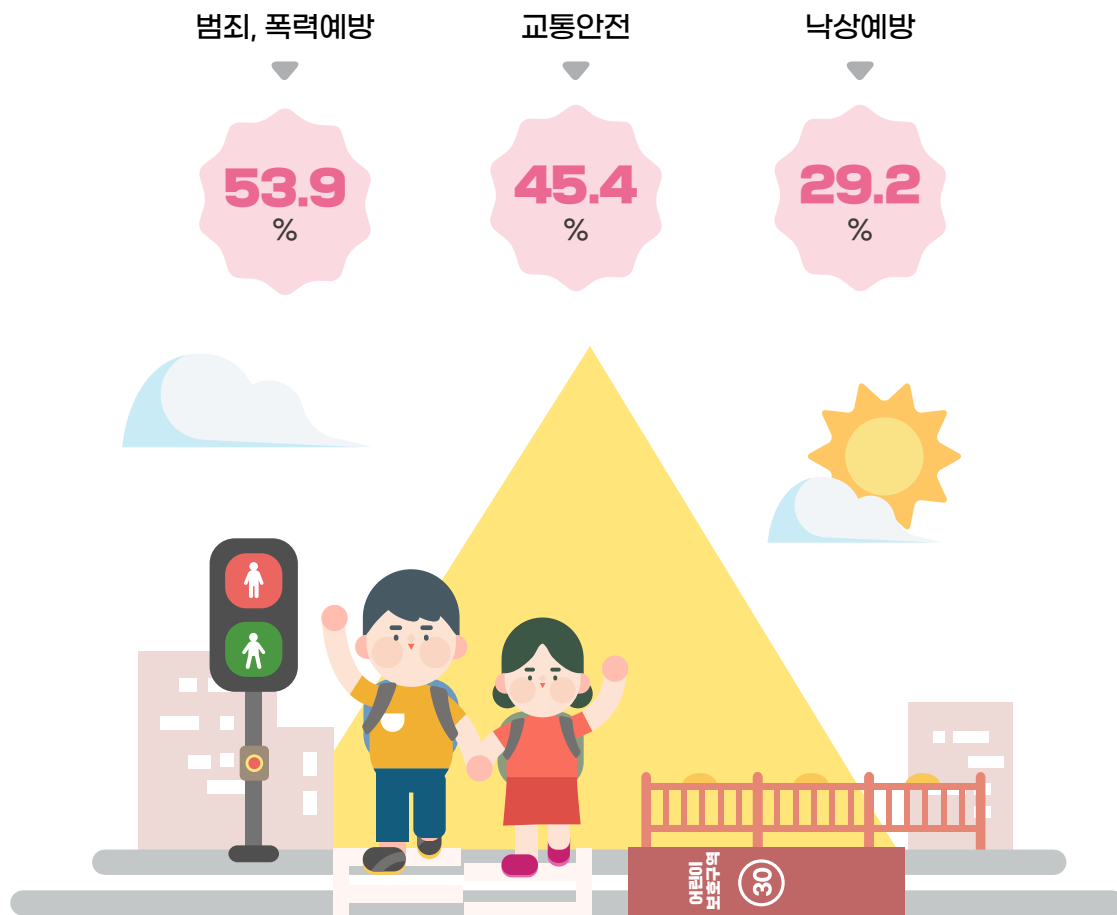
34. 안전벨트 착용률



	2017년	2018년	2019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95.4 %	96.5 %	97.8 %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91.6 %	88.8 %	9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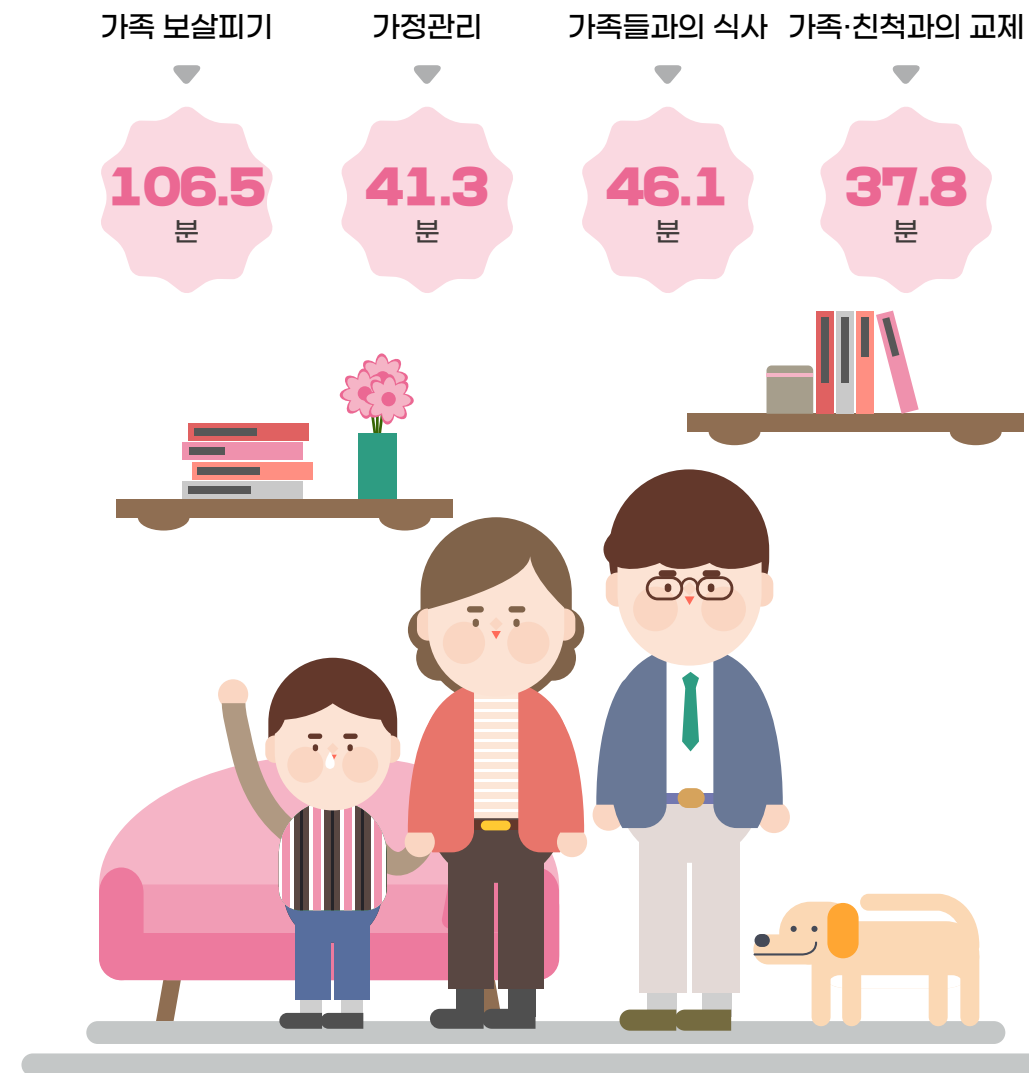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 내부에서 사망할 확률은 6.1%에 불과하지만 차 밖으로 튕겨나갈 경우엔 사망률이 6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운대 구민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면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위 생명줄인 안전벨트,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

35. 최우선 시행 안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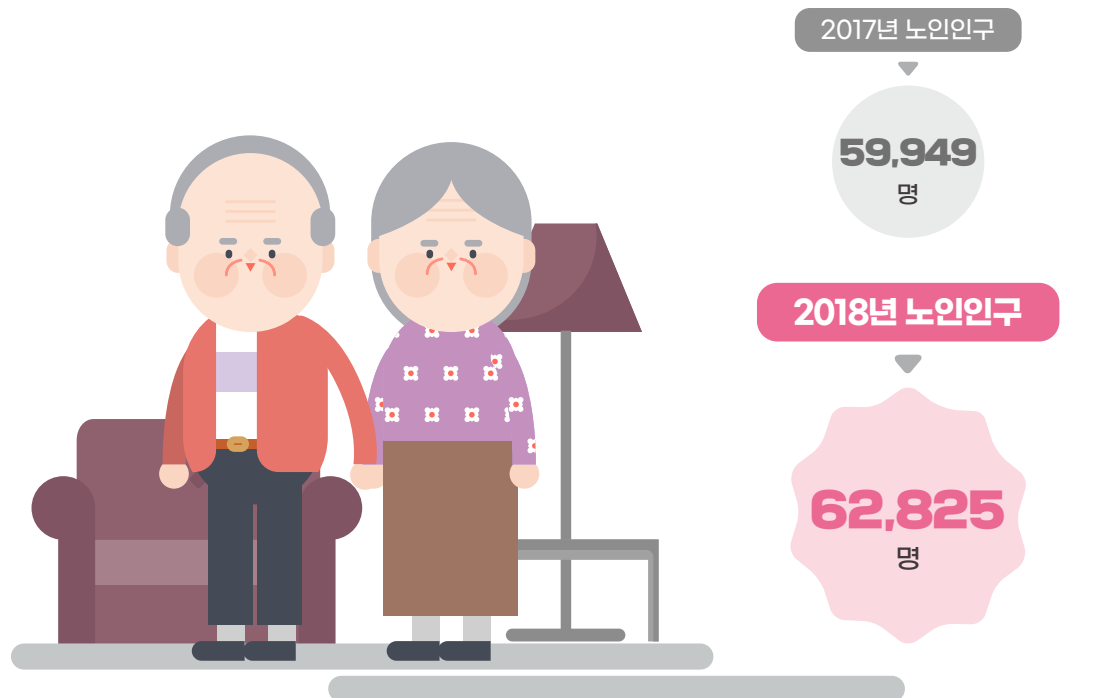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인간의 기본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해운대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범죄, 폭력예방사업 53.9%, 교통안전사업 45.4%, 낙상예방사업 2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해운대구는 보행자중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0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확충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헬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운대구는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36.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족. 이런 가족과 하루 평균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해운대 주민은 하루 평균 가족 보살피기에 106.5분, 가족과의 식사 46.1분, 가정관리 41.3분, 가족·친척과의 교제에 37.8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37. 나홀로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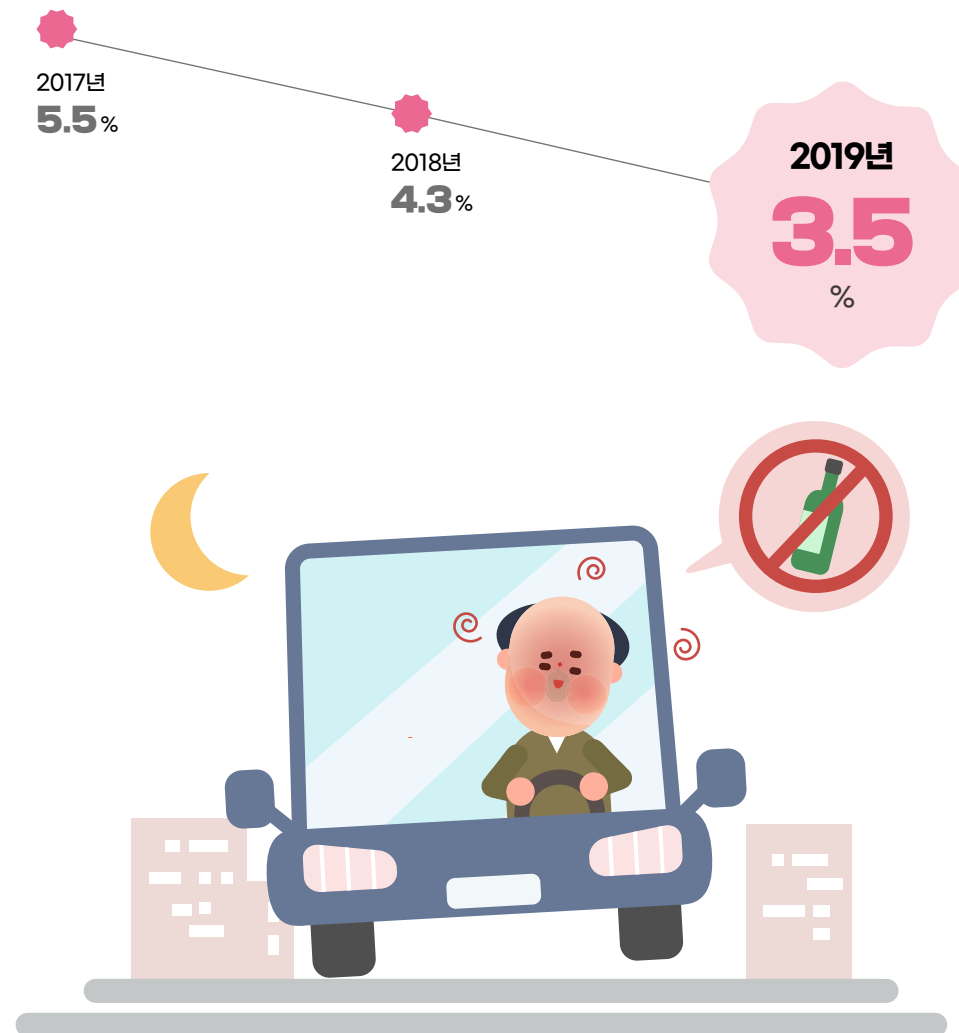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2025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1인가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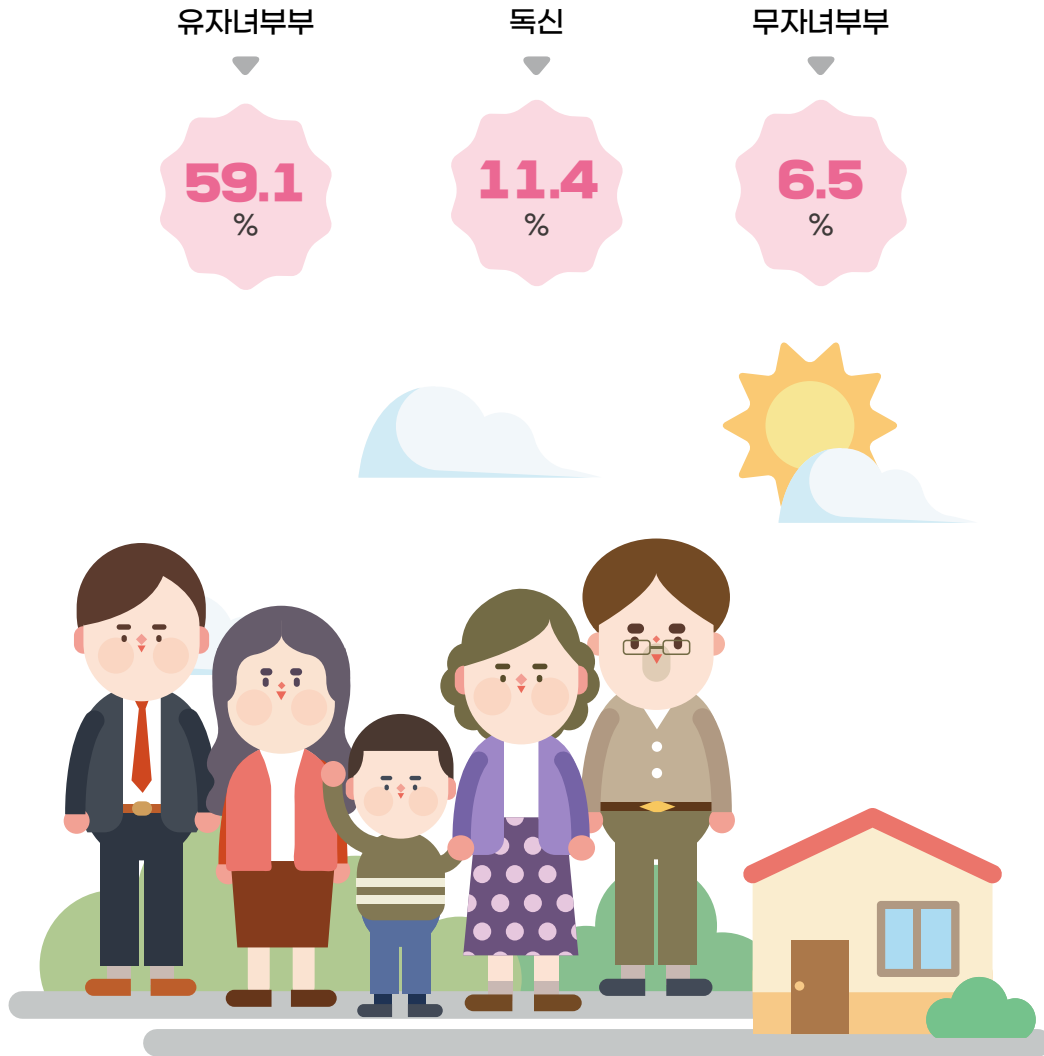
해운대구청 : www.haeundae.go.kr → 복지 → 노인 → 노인일자리사업

38.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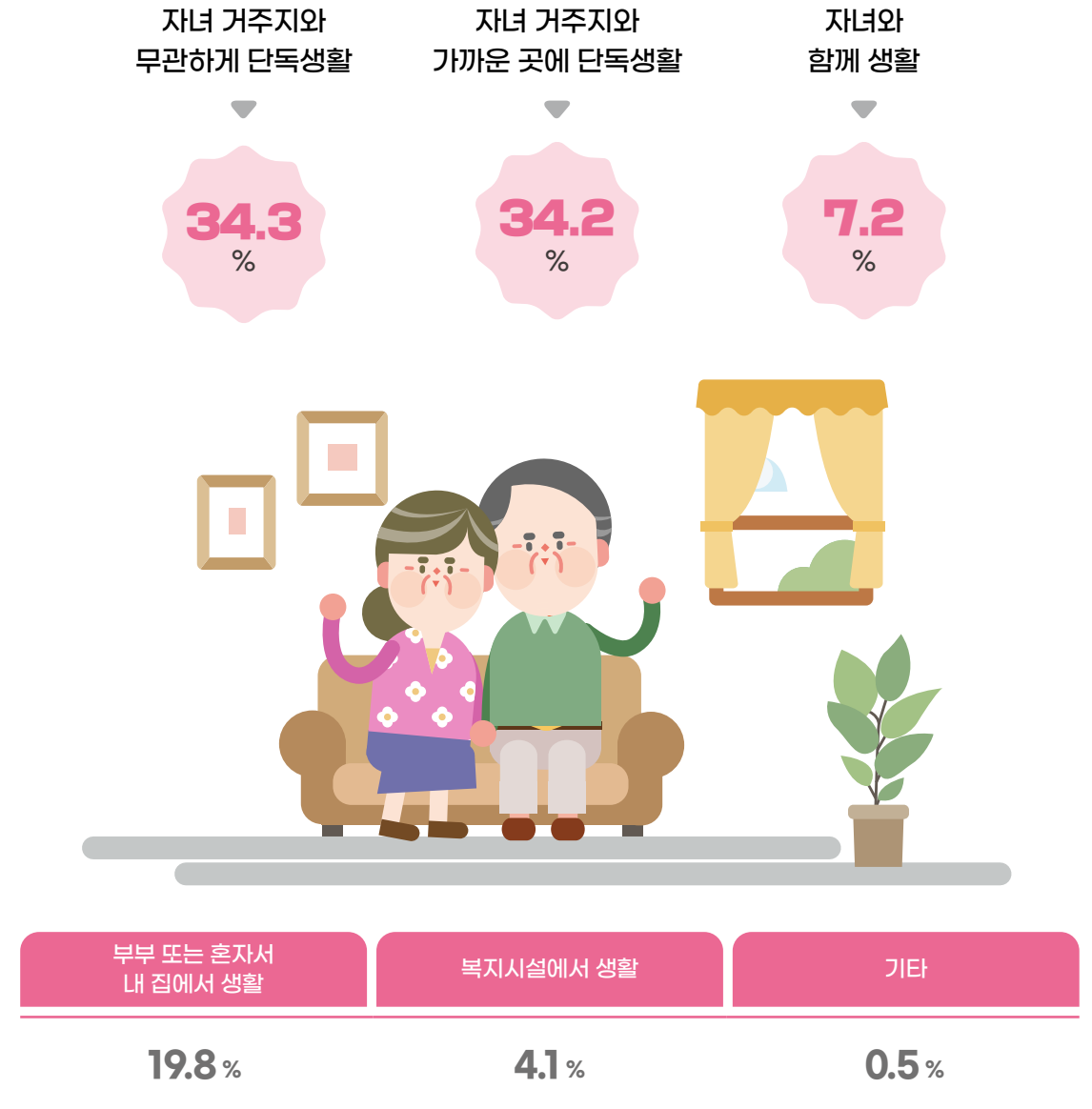
19세 이상 해운대 구민의 3.5%가 2019년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4.3%, 여성이 2.2%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많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음주운전 경험 수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39. 선호하는 가족 형태



학창시절 미술시간에 우리가족 그리기 하면 도화지에 어떻게 그려 넣으셨나요? 현대사회의 가족은 특정한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선호하는 가족의 모습도 각기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해운대 구민이 선호하는 가족 형태를 보면, 독신과 무자녀부부를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자녀부부로 구성된 가족을 가장 선호합니다.

40. 선호하는 노후생활 형태



2018년 해운대 구민에게 노후에 희망하는 생활 형태에 대해 물었더니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 자녀 거주자와 무관하게 또는 가까우나 독립된 공간에 따로 살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 중 68.5%를 차지했습니다. 자녀에게 간섭받지 않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V

건강과 환경

-
- 41. 연간 흡연율
 - 4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 43. 비만도 분포
 - 44. 걷기 실천
 - 45. 우울감 경험률
 - 46. 치매 질병 부담 이유
 - 47. 아침식사 빈도
 - 48. 손 씻기 실천율
 - 49. 폐기물 발생량
 - 50. 미세먼지 농도
-



41. 연간 흡연율

금연클리닉 등록인원

1,547
명



2017년

2018년

2019년

18.8%

19.8%

17.3%

해운대 구민의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부산시 전체평균(17.7%)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흡연은 암,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기대수명 역시 짧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운대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해운대구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금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동안 10여 차례의 금연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니코틴 보조제 제공, 성공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개인의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해운대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올해는 금연에 꼭 성공하세요.

해운대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T. 051-749-7530, 7531

4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15.9
%



남성

22.8%



여성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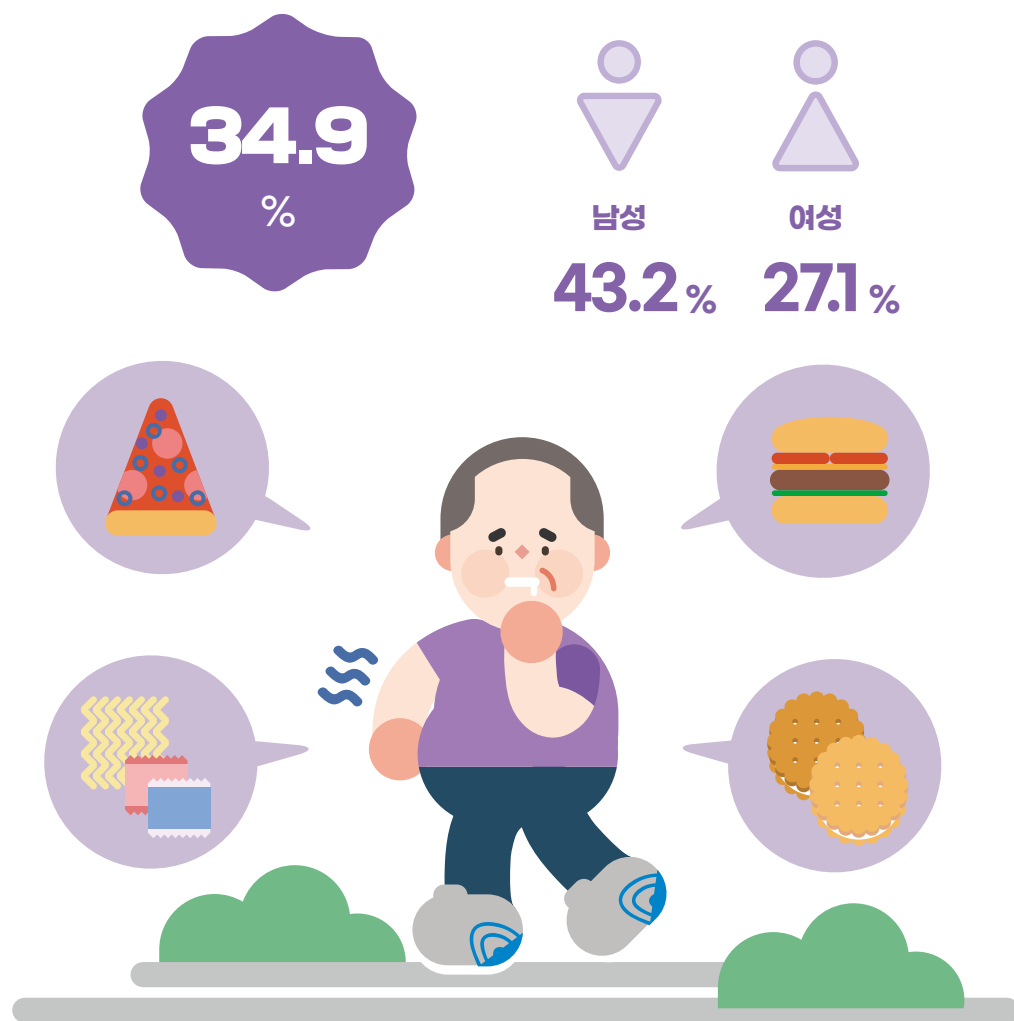
2019년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해운대 구민은 10명 중 1~2명입니다. 음주는 흡연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이상 더 든다고 합니다. 중독 등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주취 폭행과 같은 각종 사고 발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알코올 중독, 해운대구의 손을 잡아주세요.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전문치료기관인 온사랑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4대 중독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재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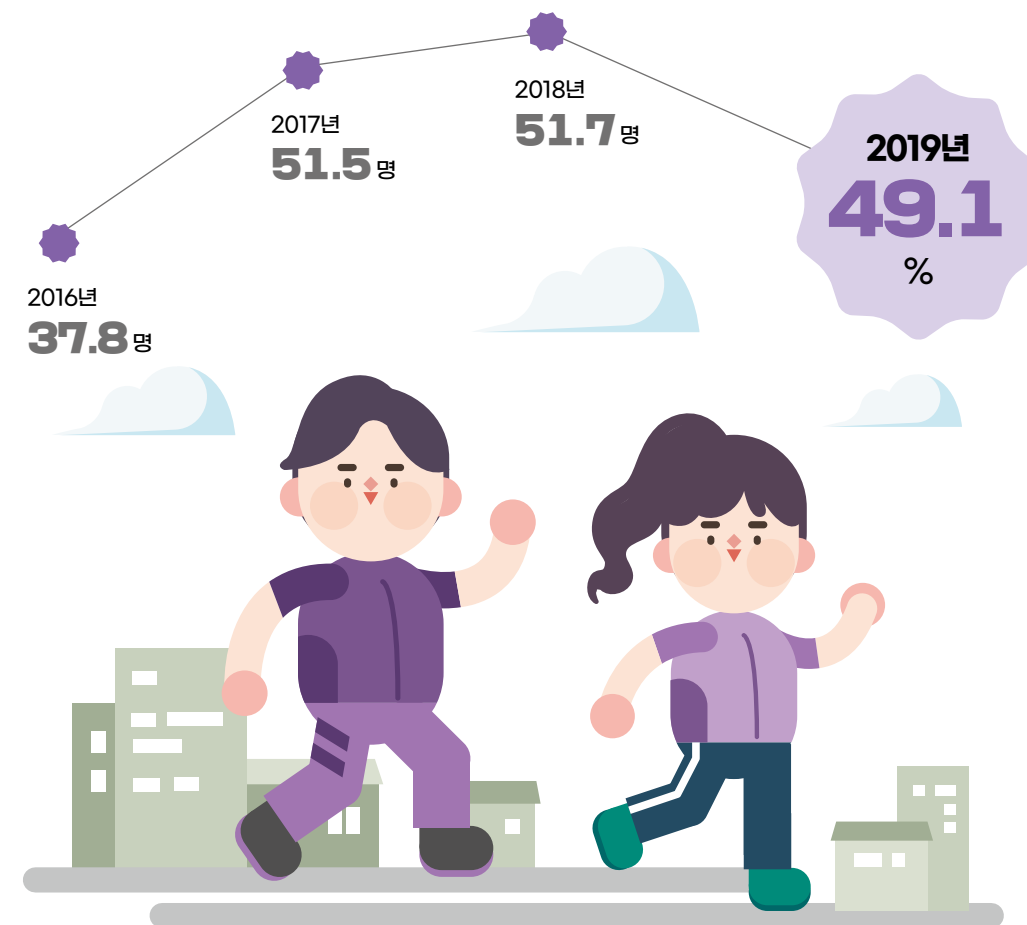
www.haeundaecacc.com | T. 051-545-1172, 1191, 1192

43. 비만도 분포



비만은 만성질환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 신체활동의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데, 비만은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 달리 경제발전과 생활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비만율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않지만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의 비만도 분포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높고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4. 걷기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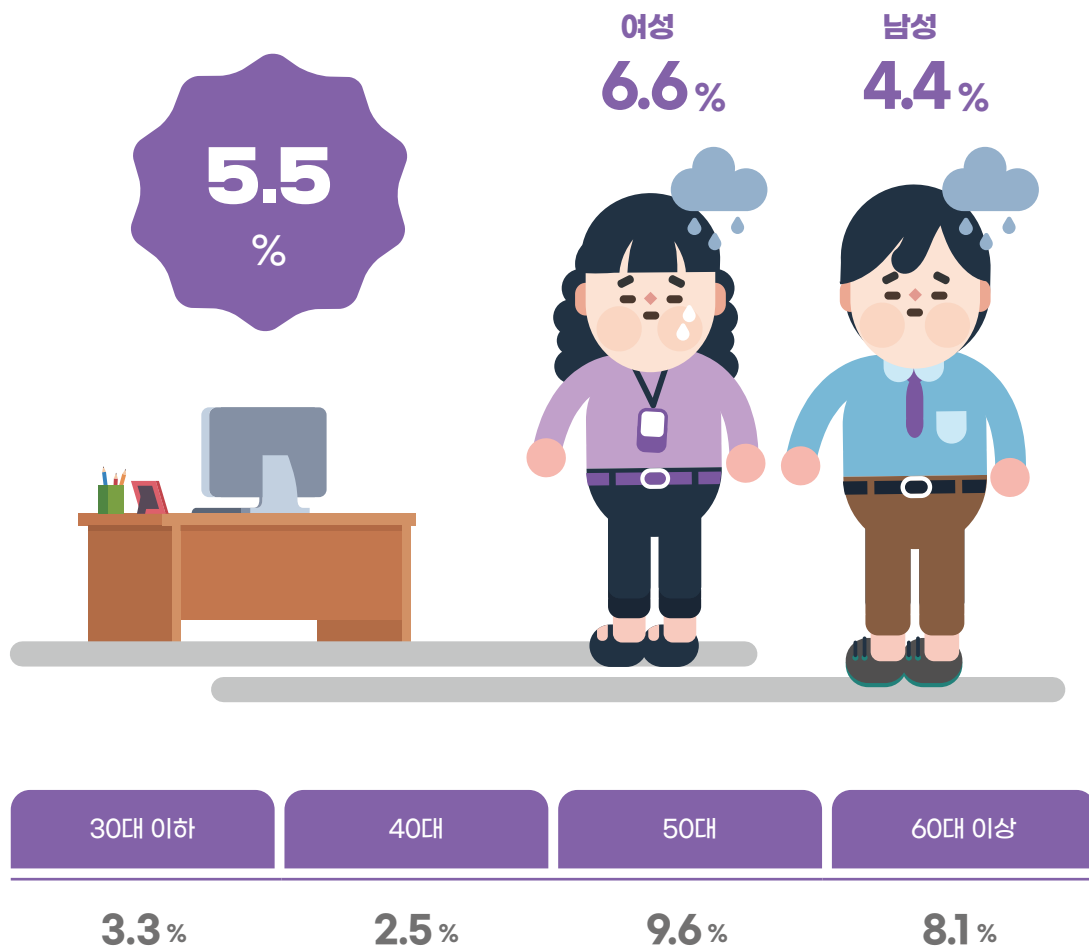


2019년 만19세 이상 해운대 구민의 절반은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총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민 스스로 걷기를 실천하고 걷기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에서는 2019년 「1530 건강걷기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해운대보건소에서 걷기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생활실천사업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보건소

www.haeundae.go.kr/health/index.do

45.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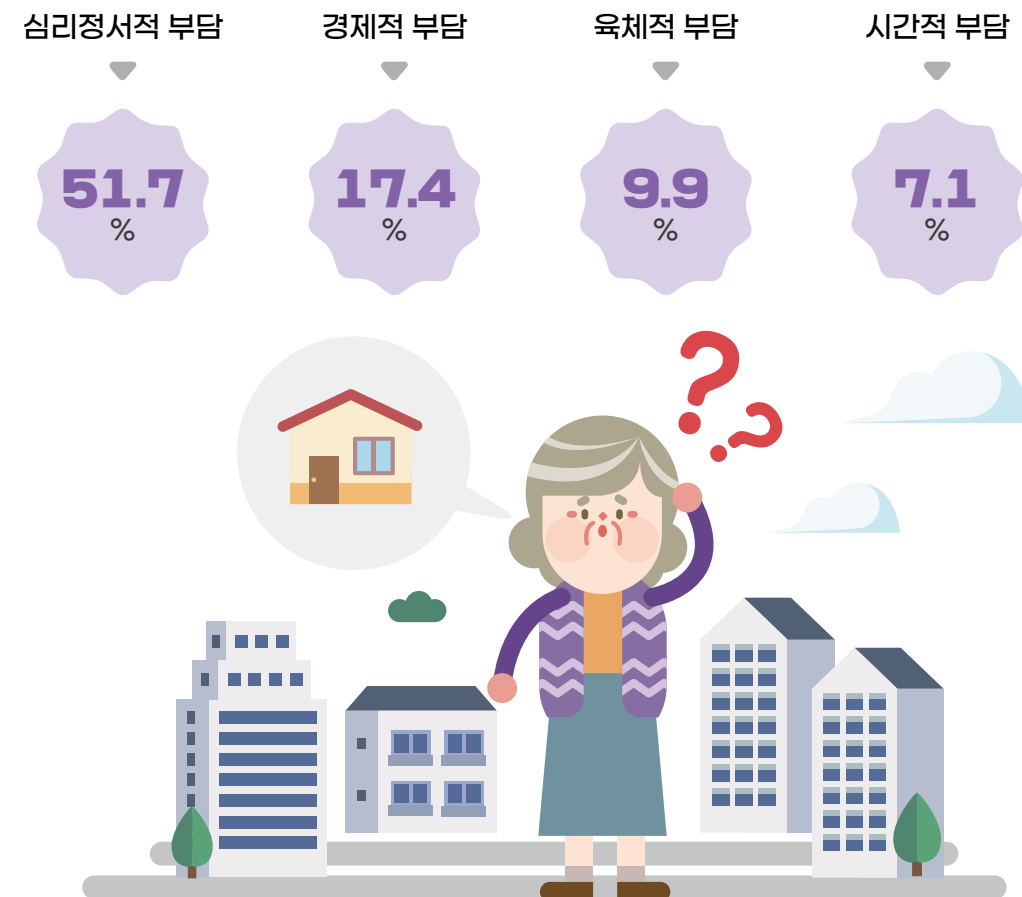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2019년 한해, 해운대 구민 중 5.5%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상을 1.5배 정도 더 많이 경험했고, 연령별로는 50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건강, 해운대구건강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 정신건강 상담 T. 051-741-3567

46. 치매 질병 부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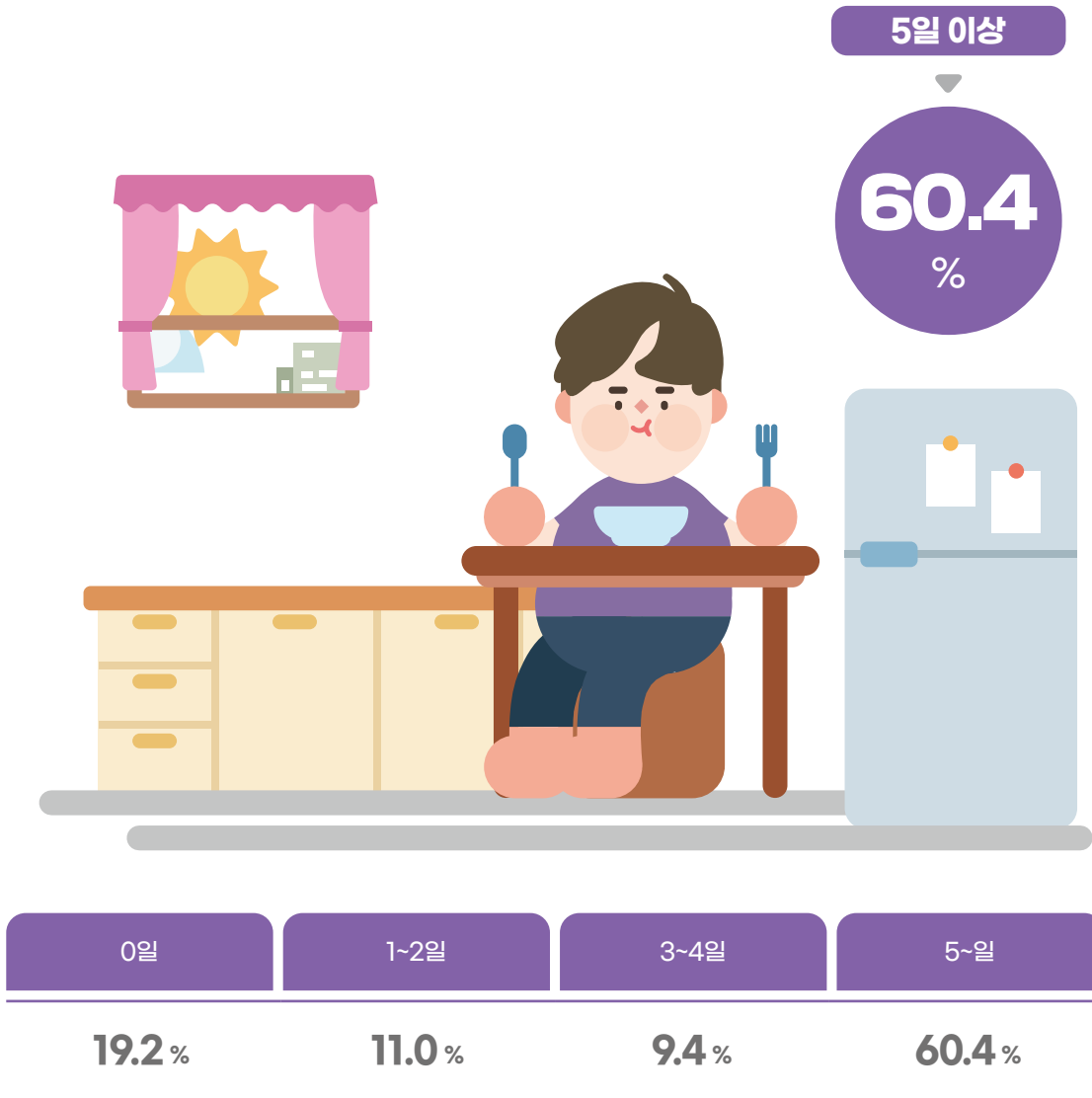
치매환자로 인해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가족이 있는 가구에 물었습니다. 심리정서적 부담이 51.7%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 육체적 부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고령화시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3개팀,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치매환자의 검진, 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족의 정보교환, 휴식의 장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좌동, 해운대구보건소) | T. 051-749-0770 | haeundae.nid.or.kr/intro/intro.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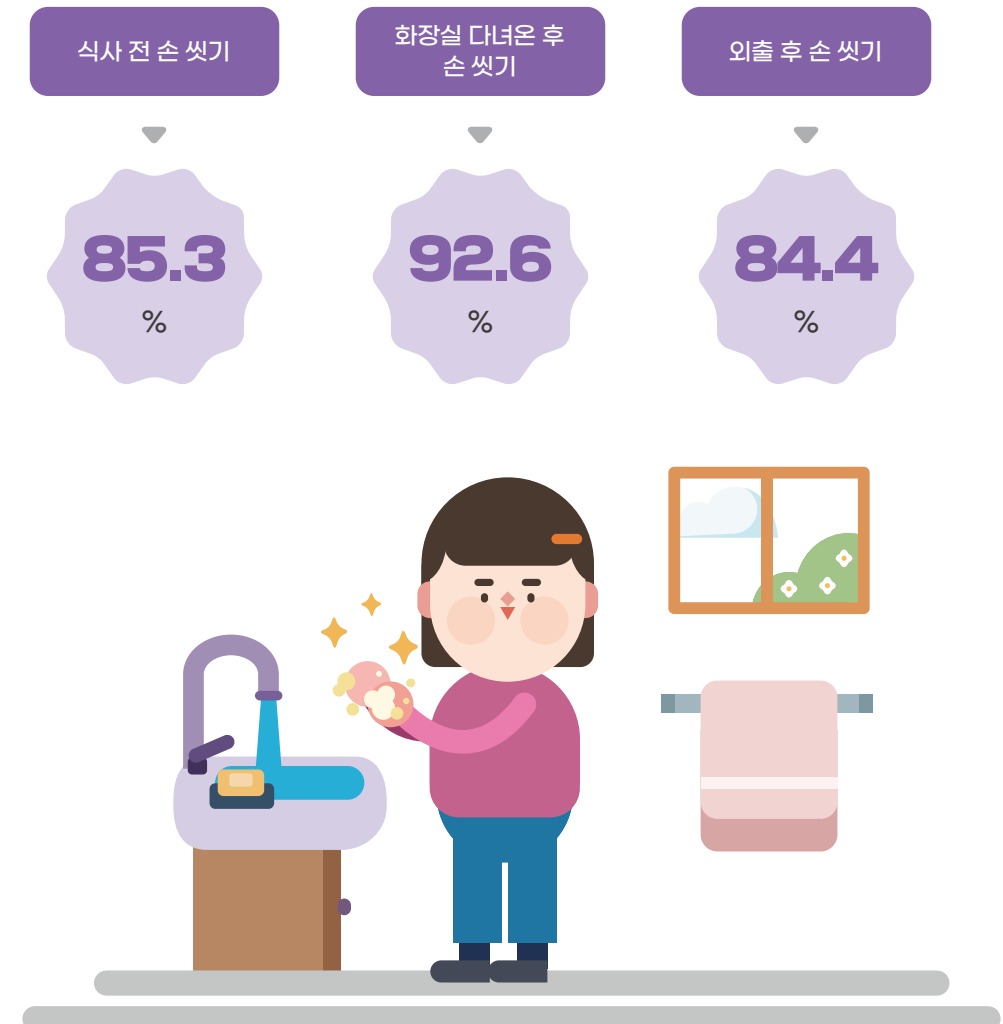
47. 아침식사 빈도



아침식사, 먹고 다니시나요? '시간이 없다', '식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결식은 불규칙한 식사습관으로 이어져 과식, 야식, 결식 등의 악순환과 장기적인 영향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몸은 나중에 또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결국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잠자던 두뇌를 깨우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선사해주는 아침식사.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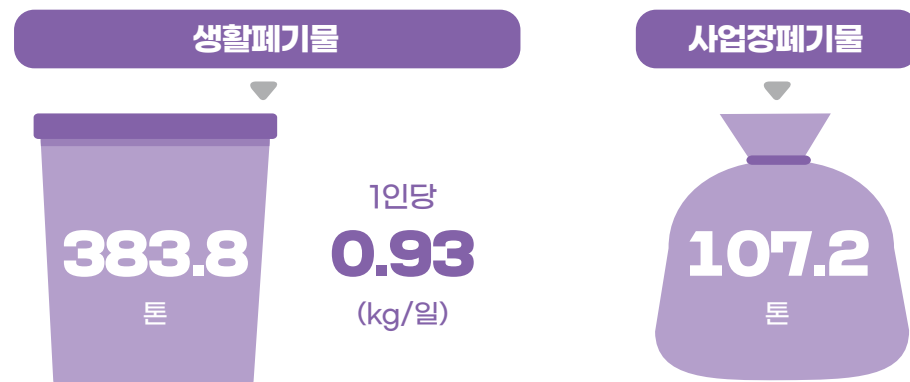
48. 손 씻기 실천율



매년 10월 1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각종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희생을 줄이고자 제정되었는데요. 손 씻기를 통해 장티푸스, A형 간염과 같은 장관감염증과 인플루엔자,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증을 간단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백신, 손 씻기로 건강을 지킵시다.

49.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 자체보다는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과정에서 오염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1인당 하루 평균 0.93kg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적 내용을 담은 「**회용품 줄이기**」 쿤트를 제작, 공연하는 등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 미세먼지 농도



	3월	6월	9월	12월
미세먼지(PM10)	44 $\mu\text{g}/\text{m}^3$	28 $\mu\text{g}/\text{m}^3$	22 $\mu\text{g}/\text{m}^3$	27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31 $\mu\text{g}/\text{m}^3$	23 $\mu\text{g}/\text{m}^3$	15 $\mu\text{g}/\text{m}^3$	21 $\mu\text{g}/\text{m}^3$

*환경부 미세먼지(PM10) 등급 : 좋음(0~30 $\mu\text{g}/\text{m}^3$), 보통(31~80 $\mu\text{g}/\text{m}^3$), 약간나쁨(81~120 $\mu\text{g}/\text{m}^3$), 나쁨(121~200 $\mu\text{g}/\text{m}^3$)

*환경부 미세먼지(PM2.5) 등급 : 좋음(0~15 $\mu\text{g}/\text{m}^3$), 보통(16~50 $\mu\text{g}/\text{m}^3$), 나쁨(51~100 $\mu\text{g}/\text{m}^3$), 매우나쁨(101 $\mu\text{g}/\text{m}^3$)

2019년 해운대구 미세먼지 농도는 22~44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농도는 15~31 $\mu\text{g}/\text{m}^3$ 으로 보통수준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데요, 해운대구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산시 구·군 최초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주민 워크숍 및 환경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생활지표 50

